



- 1. 활력 있는 도시
- 1. 활력 있는 도시
- 1. 활력 있는 도시
- 1. 활력 있는 도시

丁亥年 해맞이는 삼천포대교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길'에서 희망찬 새해 아침을...



사천시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전국 9대 일몰 명소'로서 널리 알려진 '실안 일몰'과 청정해역 한려수도의 중심지이면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삼천포대교에서 새해 1월 1일 오전 6시에 '2007 삼천포대교 해맞이 축제'를 연다.

이번 축제는 사천시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려수도의 길'이라는 장점을 이용, 해맞이

를 보기위해 차량이 오랫동안 정체되는 동안에 주요 해맞이 행사장과 차별된 장소로써 수도권과 중부권의 관광객들이 사천시를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해맞이 축제는 사천시 벌음동 풍물패 소리누리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사천문화원 전통예술단의 모듬북 경연과 동서동 대방굴항 앞 신 방파제에서 신년 축포를 쏘아올려, 새해를 맞이해 앞서 시

민과 관광객이 한데 어울려 아름다운 불꽃놀이를 감상하게 된다.

이어 음향과 함께 새해 축하 메시지가 전해지고,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도의원이 참여하는 '희망의 북' 타고(打鼓)가 33번 있게 되며, '소망 촛불 밝히기' '탄세 삼창' '소망연 날리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600년만에 찾아온 '금 돼지 띠 해'를 맞아 해맞이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가정에 재물과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는 '희망 황금 돼지 나누기'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국제적인 담배회사인 British American Tobacco Korea 그룹과 사천시

새마을회는 삼천포대교 공원에서 떡국을 무료로 나눠드리는 '소망 떡국 나누어 먹기' 행사와 사천여성 의용소방대와 사천시 대방동 큰고을 굴항회에서 따뜻한 차를 제공해 사천시민의 훈훈한 정을 해맞이 관광객에 전해 줄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사천시 삼천포항은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한려수도의 중심지와 자연산 활어회와 집산지로서 그간 동해안이나 서해안의 일출·일몰보다 국민들에게 색다른 맛과 멋, 볼거리를 선사할 것"이라며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때 교통정체 등 다소간의 시민불편이 있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손님을 맞는 차원에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는 총무과 ☎830-4270

찾아오는 길

대전고속도로 → 남해고속도로 → 사천IC → 사천읍 → 삼천포항

사천대교 개통

“사천만의 대역사, 남해안시대 성장동력”
12월 18일(월) 오후 3시 개통 및 다리밟기



경남도가 1,467억원을 투입하여 '99. 3. 5일 착공하여 '06. 12. 18일 개통하는 사천대교는 사천시 서포면과 용현면을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상의 교량으로서 연장 2.2km, 폭 11.2m로 장래 4차로중 남측의 우선 2차로를 건설한 교량으로 접속도로 5.0km를 포함하고 있다. 사천대교는 강상관 상형교로 주경간교와 접속교 2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경간장 130m, 형하고 20m로 하부구조는 중공 기둥식 교각(우물통 기초)으로 건설하였다.

단 운행거리 32km 단축에 따른 서포~용현간 주행시간이 4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되어, 연간 200억원의 물류비 절감과 115억원의 관광효과는 물론, 사천으로서 연장 2.2km, 폭 11.2m로 장래 4차로중 남측의 우선 2차로를 건설한 교량으로 접속도로 5.0km를 포함하고 있다. 사천대교는 강상관 상형교로 주경간교와 접속교 2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경간장 130m, 형하고 20m로 하부구조는 중공 기둥식 교각(우물통 기초)으로 건설하였다.

국인 기업전용단지, 사남농공단지 등의 물류수송에 원활을 기하고, 사천공항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및 국도 3호선과 연계망을 구성하여 남해안 관광지를 연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 큰 기대가 되고 있다. 특히, 사천대교의 개통으로 교통 환경도 좋아지겠지만 사천시의 명물로서, 인근 10km 지점에 위치한 창선~삼천포대교와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해안관광 투어 등으로 사천대교와 어우러진 사천만 절경을 탐방할 수 있는 남해안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재육성시책 가시적 성과 올려

관내 고등학교 진학 166% 증가, 인재육성장학금 지급(407명, 6억5200만원)

사천시는 지난 2001년부터 인재육성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2007년이 되면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첫해가 되는 등, 우리시 미래 발전의 주역이 될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사천시는 타 지역학교 진학에 따른 우수학생 유출과 갈수록 취약해지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다양한 인재육성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올해까지 총42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2006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으로는 우수학생이 관내 학교에 진학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고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 인재육성장학금 지급(154명, 2억4800만원)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

한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32개교, 5억8000만원),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38개교, 1억7100만원), 향토사랑시범학교 운영(2개교, 1000만원), 학교 체육종목 육성 및 시설비 지원(24개교, 1억8600만원), 관악부·농악부·가산오광대 육성 학교 지원(4개교, 2000만원), 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1억1000만원)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사천시 관내 학교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내신석차 5%이내 우수학생의 사천시 관내 고등학교 진학이 2004년 9명에서 2006년 24명으로 166% 증가, 사천시 관내 전체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입학률이 2004년 68%에서 2006년 74%로 6% 증가, 사천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이 2003년

74%에서 2005년에는 83%로 9% 증가했고, 국내 유명대학에 다수 학생을 배출하는 등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첫 단추를 잘 끼움으로서 타 자치단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2007년에도 계속해서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학교 급식식품비 지원,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원어민 교사제 운영, 향토사랑시범학교 운영, 학교 체육종목 육성 및 시설비 지원, 관악부·농악부·가산오광대 육성, 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등의 다양한 인재육성시책 추진과 함께



예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사천시는 학생들의 자유학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학부모들의 과중한 학비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21세기 지역발전의 근간이 될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인재육성시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5회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참가 신청

- 대회일시 : 2007. 3. 4(일) 09:30
- 대회장소 : 삼천포대교공원
- 모집인원 : 5000명
- 종목 및 참가비 : 하프, 10Km⇒2만5000원, 5Km⇒1만5000원
- 접수기간 : 2006. 11. 27 ~ 2007. 1.31 (선착순 마감)
- 접수방법 : 방문, 팩스, 시청 및 시 체육회 홈페이지
- 접수처 : FAX (02)723-2577 (주)스포테인 마라톤대회 홈페이지 : http://www.4000run.co.kr



○ 주 최 : 사천시, 남해군
○ 주 관 : 사천시체육회, (주)스포테인

아주 특별한 경험, 경남 사천시에서 맞이하는 해맞이 축제

새해, 새희망 삼천포대교 해맞이 축제

▷ 일시 : 2007.1.1(월) 06:00~
▷ 어디서 : 삼천포대교
▶ 여기저기 가장 아름다운 길 대방 수장

“희망찬 정해년
새해 아침을 가족과 함께”

- 새해를 깨우는 북소리
- 연년축포
- '희망의 북' 타고, 탄세삼창
- 시민 대합창
- 소망떡국 1만3천원분 나눠먹기(무료)
- 소망 연날리기
- 희망 풍양채지 나누기
- 소망풍물 췌리기
- 다리밟이 놀이(무료)

시 2007년도 살림살이 3천3백억원 편성 시의회 제출



사천시가 2007년도 당초예산 규모를 3,301억원으로 확정해 시의회에 의결을 요청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82억원, 특별회계가 319억원으로 전 해 대비 당초예산보다 25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 증가비율이 10.3%로 나타났다. 이는 1995년 도·농통합 사천시가 출범한 시점인 1,092억원보다 3배를 넘어선 예산이다.

일반회계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세입은 지방세가 267억원, 세외수입이 326억원, 지방교부세가 1,283억원, 재정보전금이 79억원, 국도비보조금이 991억원, 지방채가 36억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692억원, 사업예산이 2,182억원, 채무상환이 28억원, 예비비 등이 80억원이다.

주요 투자 사업별로 살펴보면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지원 사업 94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 196억원 등 환경보전 하수처리사업,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사회복지분야 199억원, 금호교 확장 10억원 교육·수충간 도로개설 12억원 등 지역균형 개발과 시민불편 해소 사업을 최우선으로 해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내년도에는 한국민속예술포럼, 항공우주엑스포, 세계타악축제 등 사천지역을 알리는 특색있는 행사를 개최해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96억원이며, 내년도 신설된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기타 특별회계가 123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내년도 신청사 준공과 사천대교 개통으로 새로운 구심점을 만들어 시민복지 증진을 물론 투자유치 촉진, 관광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해 한층 더 살기좋은 사천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다.

사천시 종돈, 단감 베트남과 550만불 수출 MOU체결



사천시는 종돈, 단감 등 수출을 위하여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6일간 김수영 사천시장의 관계자 일행이 베트남을 방문해 종돈 500만불, 단감 50만불 등 550만불 베트남 수출을 위해 사이공농업회사(SAI), 탐빈농장, 하이농장등과 MOU 체결 계약을 맺었다. 사천시 관내 금자육종은 2002년도 80두, 2005년도 500두의 베트남 수출을 통해

베트남의 양돈업계에 큰 바람을 일으키는 등 인기가 있었으나 베트남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수출길이 다시 열리게 되었다. 베트남은 돼지 사육두수가 우리나라의 3배에 달하는 약 2,500만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대부분이 돼지고기를 선호하고 있어 돼지고기 소비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베트남 국민의 기호와 사육조건에 알맞은 돼지를 개발하여 연차적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단감은 베트남에 일부 생산되고 있으나 과일이 작고 아삭아삭한 맛이 적어 우리나라 단감과는 차별화 되고 있어 우리나라 판매가격이 낮은 작은 단감 수출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천시 방문단 일행은 농업과 공업이 함께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를 방문해 종돈과 단감 등 농산물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특히 미국, 유럽 등에서 수입하는 종돈을 우리나라로 수입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홍보했으며,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 금자육종의 수입 돼지가 베트남에서 인증을 받고 있으므로 우량유전자 돼지를 안정적인 수입을 희망했고, 금자육종과 탐빈농장과의 합작을 희망했기 때문에 사천시는 미국과 FTA체결추진 등으로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종돈, 단감 등 농산물을 베트남에 계속 수출해 나갈 계획이며, 베트남 당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요망했는데 실무 검토기로 했다.



‘사천 아카데미’ 제14강 이성호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초빙

12월14일 삼천포체육관 오후 2시

매월 실시해 오고 있는 ‘사천 아카데미’가 강좌회를 거듭 할수록 한층 더 시민의 걸

으로 다가오고 있다. 12월 14일(목) 오후 2시 삼천포체육관에서 ‘21세기 신세대 자녀 교육’이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이성호 교수를 초빙하여 강좌를 개최한다. 이성호 교수는 연세대 대학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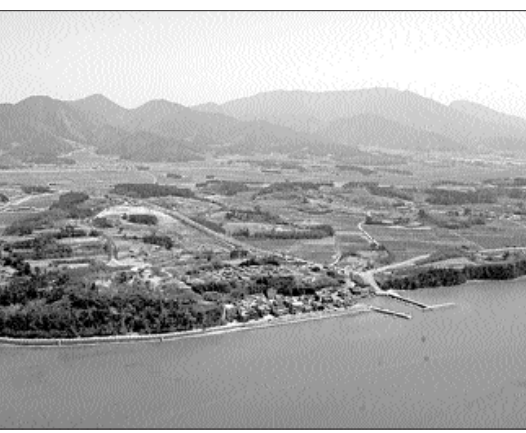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임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교육의 이해」, 「지금 당신의 자녀가 흔들리고 있다 1·2」 등 다수가 있다. 20여년동안 대학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변하는 21세기 우리 교

육현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 신세대 자녀교육에 대한 좋은 강의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한달에 한번만은 ‘사천 아카데미’에 참여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의는 총무과 ☎830-4270

선진~종포간 연안정비 국가사업 반영

사천시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연안과피 및 유실 등 침식방지와 해안면 미정비로 해변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선진~종포간 연안정비사업(국가사업) 10개년 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47호)에 반영됐다.

각종 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훼손된 해안을 정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국가시행사업으로 반영된 선진~종포간 친수연안 조성사업은 총 100억원의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국가시행사업으로 2007년도 용역을 거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으로 반영된 선진~종포간은 선진리성, 조명군총 등 사적지가 있는 어촌으로 관광객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해안면이 정비되지 않아 미관저해와 해안침식이 어려워 훼손된 해안을 정비하고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 등 친환경 해양공간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다. 선진~종포간 친수연안조성 사업은 호안정비로 주변해역의 습지보호와 해안침식을 용이하게 하고, 자연을 조망할 수 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 시행기간 : 2006. 1. 1 ~ 2007. 12. 31(2년간)
- 적용대상 : 1995년 6월30일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취득했으나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
- 대상지역
 - 읍·면 지역 : 토지 및 건물
 - 동지역 : 농지·임야 및 공시지가 m당 6만500원이하의 모든 토지
- 신청절차 : 리·동별 법정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서를 받아 신청
- 구비서류 : 보증서, 확인서발급신청서, 부동산등기부등본(마등기부동산은 등기부열람조서), 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국유지에 한함) * 기타 문의사항 : 민원저적과 ☎830-4623

산불예방대책 최우수 기관 선정



시가 경남도 2006년도 춘기 산불예방 대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 까지 7개월 동안 산불은 순간, 북구는 광생이라는 구호아래 시청사와 읍면동 등 15개소에 산

불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각산 외 9개소의 초소를 추가로 운영, 산불 제로화운동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산불피해를 최소화 했다. 또 산불 취약지, 산불다발지역 등산로 등에 산불감시원 102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5명, 명예산불감시원 600여명을 배치 산불예방에 나섰다. 시는 경찰마케팅, 시캐릭터 또 록이를 이용한 산불예방 홍보와 업무 수행능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전국 동상, 경남도 우수기관에 이어 올해 경남도 최우수기관의 영예를 차지했다.

세대공감 콘서트

- 공연일시 : 2006. 12. 28(목) 19:30
- 공연장소 : 사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입장료 : 전석 2만원(예매 1만5000원/문화가족 1만2000원 할인)
- 출연자 : 김중환, 해바라기, 사랑과평화, 이유리
- 예매처 : SK텔레콤 세영점(834-0170), 해림문고(835-0960), 청담파인스튜디오(833-8355), 라데팡스 안경삼천포점(835-6688), 안경원(852-3191), 뮤직랜드(852-7070), 문화예술회관(830-4441)
- 공연안내 : 사천시문화예술회관(830-4441)

시정뉴스 서경방송 채널 6번에서 방영됩니다

사천시정의 생생한 뉴스를 (주)서경방송 채널 6번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매주 월·수·금요일(오전 10시20분, 오후 4시20분, 밤 11시20분)에 주 3회, 1일 3회 방영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전국 불법어업 일제단속

전국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 추진과 함께 불법어업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소형기선저인망어업 특성상 언제든 재진입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허가어선의 합법어업을 가장한 불법 어업도 빈발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2006년 10. 20일부터 급년 말까지 소형기선저인망어업 및 허가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 1. 단속기간 : 2006. 10. 20 ~ 12. 31
- 2. 참여기관
 - 주 관 : 해양수산부
 - 참 여 : 해양경찰청, 도/시/군,어업지도사무소
 - 협 조 : 법무부(검찰청)
- 3. 중점단속대상
 - 합법어업을 가장한 불법어업
 - 조업구역 위반 및 불법전개관 부착단속
 - 새우조망어업의 어구규격 등 위장 불법어구 사용
 - 통발의 그물코 규격위반 어구 사용 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지난 11월 22일 전북 익산 소재 종계(種鶏) 사육농장에서 발생한 의사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정밀검사 결과 가금류에 피해가 큰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형질형 H5N1)로 판정됨에 따라 방역활동을 소홀할 경우 우리시의 유입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닭, 오리 사육농가에서는 농장 소독, 외부 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산란유지, 폐사물처리 등을 증상으로 하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닭 발견 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가 행동 수칙을 아래와 같이 게시 하오니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닭 ‘오리고기 및 계란은 안심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된 농장의 반경 3km 이내의 모든 닭, 오리 등 가금을 살처분·매몰하게 되므로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닭·오리 및 계란이 유통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감염된 가금류와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된 닭·오리고기나 계란을 날 것으로 섭취하지 않는 이상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75℃ 5분간 열처리 시 사멸됩니다.

- 농가행동 수칙 - 가. 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합니다(농축산과 축산담당 ☎830-4797. 1588-4060)
- ⇒ 주요증상 : 안면, 비호, 다리의 부종, 출현반 또는 청색증, 심한침울, 폐사를 증가, 호흡기증상, 신경증상, 산란을 저하 등 나. 축사, 사료창고, 분뇨처리장내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 그물망 설치, 비닐포장 등 차단조치를 합니다. 다. 가금사육농가는 철새도래지에 가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간 때에는 신발세척·소독후 귀가 합니다. 라. 축산농가의 종국·베트남·태국·네시아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 합니다. 마. 1일1회 이상 축사내·외 소독 철저하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안내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자동차세는 우리시의 지역발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오니 납기 내 납부하시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납 기 : 2006. 12. 16. ~ 2006. 12. 31.
- 납 부 장소 : 가까운 금융기관 및 우체국.
- 납 부 방법 : 신용카드(엘지)납부 시 시청 세무과 방문납부
- 이 외 신 청 : 자동차세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바랍니다.
- 납부경과 후 조치 :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 그 후 매 1개월마다 1.2%의 증가산금(30만원 이상인 경우)이 추가되며, 자동차 번호판 연치, 재산임무, 관허사업제한 및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 부 세액
 - 승용 : 배기량 x cc당 세액 x 연식별 감액율 = 년세액
 - 승합 : 화물자동차 : 정액세(6,600~157,50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연식별 차등과세 안내
 - 2001. 7. 1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해부터 매년 5%씩 누증 감액하되 최고 50%까지 감액.
 - 차등과세대상 : 차령 3년 이상 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 납부세액 : 당해 기본 세액 - (기본세액 x 5% x (차령-2))
 - * 차령별 감액률(차령12년 초과 자동차는 12년으로 봄)

차령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감액율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연식	2004. 1/1~12/31	2003. 1/1~12/31	2002. 1/1~12/31	2001. 1/1~12/31	2000. 1/1~12/31	1999. 1/1~12/31	1998. 1/1~12/31	1997. 1/1~12/31	1996. 1/1~12/31	1995. 1/1~12/31

문의처 : 시청 세무과 자동차세담당자. ☎(055) 830 - 4297 읍,면,사무소 자동차세담당자.

사천 4계절 사진공모전

사천의 문화관광 명소 및 축제 등 관광자원을 주제로 한 『사천 4계절 사진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사진 동호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응모 있으시기 바랍니다.

- 1. 공모분야 : 사천시 4계절을 소재로 한 작품
- 자연경관 : 사천8경, 주요명산, 계곡, 해변, 자연경관 등 우수한 관광 자원을 표현한 작품
- 전통문화 : 문화유적지, 문화예술행사 등 문화예술을 표현한 작품
- 지역축제 : 지역축제를 소재로 한 작품
- 기 타 : 사천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
- 2. 응모방법
 - 응모자격 : 제한 없음(전국의 사진작가, 동호인, 일반사진 애호가)
 - 작품규격 : 11"×14" 흑백 또는 컬러사진
 - 출 품 수 : 제한없음
 - 출 품 료 : 없음
 - 출품요령 : 작품 뒷면에 작품명, 촬영일시, 촬영장소, 주소(우편번호), 성명, 전화번호를 정확히 명기할 것
 - 촬영기간 : 2006. 10. 20 ~ 2007. 10. 19
 - 접수기간 : 2007. 11. 1 ~ 2007. 11. 15(15일간)
 - 접 수 처 : 경상남도 사천시 벌리동 427-1 사천시청 문화관광과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당일소인분 유료)
 - 문 의 처 : (055)830-4225 (사천시청 문화관광과)
 - 심사발표 : 2007. 11월중 사천시청 홈페이지, 게시판공고
 - 작품전시 및 시상식 : 일정 및 장소 추후 발표
 - 3. 시상내역
 - 금 상 1점 (사천시청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은 상 1점 (사천시청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동 상 3점 (사천시청 상장 및 상금 각100만원)
 - 가 작 5점 (사천시청 상장 및 상금 각30만원)
 - 입 선30점 내외 (사천시청 상장 및 상금 각10만원)
 - 4. 기타사항
 - 주 최 : 사 천 시
 - 입상, 입선작은 심사 후 7일내 원판필름을 제출해야하며(디지털 작품은 CD에 저장하여 제출) 미 제출시 상권을 취소함.
 - 입상, 입선작의 저작권은 사천시에 귀속되며, 사천시 관광홍보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 동일 및 유사작품을 이중으로 출품하여 입상, 입선될 경우 상권이 취소됨.
 - 컴퓨터 합성사진으로 판명될 경우 입상, 입선의 상권을 취소함.

복지알림방

“희망 2007”이웃사랑 성금모금

연말연시 “희망 2007” 어려운 이웃들이 성금 모금을 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웃 사랑 하는 마음을 생활속에서 실천코자 합니다.
☐ “희망 2007” 이웃돕기 성금모금
○ 집중모금기간 : 2006. 12. 1~2007. 1. 31
○ 모금대상 : 전 시민
○ 주 최 : 경상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모금기관 : 언론사, 금융기관, 시, 읍면동
○ 모금방법 : 언론기관, 금융기관, 시청 사회복지과, 읍면동, 가구 모금.
※ 직장모금, ARS모금(사랑의 전화 걸기운동)
※ ARS번호 : 060-700-1212(전국단일번호 사용) : 1통화 2,000원

이웃돕기 접수 창구

언론사명	전화번호	FAX	비고
경남공공모금회	238-8366	238-8366	
사천시청소년복지과	830-4351	830-4399	
KBS진주방송국	740-7527	740-7499	
진주MBC방송국	771-2126	771-2109	
경남일보	751-1081	757-4222	
경남도민일보	250-0123	250-0124	
마산MBC방송국	250-5023	250-5049	
KBS창원방송총국	280-7120	280-7499	
경남신문	283-3233	283-8100	

<우리고장의 문화제를 찾아서 (36)>

가산리 석장승



1974년 12월24일 경상남도 민속자료 제3호로 지정된 가산리석장승은 축동면 가산리 626-1번지 외 1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정면적은 50.79㎡로 한 곳에 4기씩으로 총 8기가 있으며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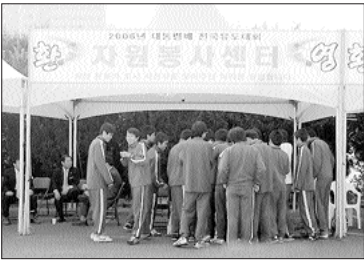
우리가 흔히 ‘장승’이라고 부르고 있는 조형물은 전국에 남아있는 유물과 문헌 및 지명 등을 수집, 조사한 것에 따르면 크게 법수계(法首系)와 장승계로 나뉜다. 그러나 오늘날은 대체로 법수계와 장승계로 나누지 않고 ‘나무나 돌로 만든 기둥 모양의 돌목 위쪽에 신(神)이나 장군의 얼굴을 새기고 몸통에는 역할을 나타내는 글을 써서 길가에 세우는 신상(神像)으로서 위협적인 수호신상(守護神將)이거나 진압신(鎮壓神) 또는 노신(路神) 등의 기능을 가진 민속신앙의 대상인 주물(呪物)’이 장승이라는 생각에 의존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민속문화관 양반이나 왕족 등 한정된 특수계층의 일시적인 문화현상이라고 설명되는 석자문화(識字文化)와는 달리, 서민이나 평민계층에서 장구한 세월을 걸쳐 벗어날 문화현상을 말한다. 민속문화는 거의 신앙적인 요소를 띠고 있으며 여기에 신성(神性)이 생김으로써 제의(祭儀)가 발생하게 되었다. 장승신앙 역시 국사당, 당산, 산신각, 당산나무(神木), 서낭당 등의 당제(堂祭)행사와 돌무더기, 선돌, 솟대 등의 입간속속(立竿習俗)이나 무속신앙과 더불어 우리나라 고유 민속문화의 소산으로 구체적인 신앙과 제사, 고사, 굿 등이 오늘날까지 전승 발전하여 전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마을신 가운데 상위신(上位神)으로 모셔지는 산신, 서낭신, 용왕신에 비하여 벽수와 장승은 솟대나 돌무더기와 같이 있기도 하면서 하위신(下位神)으로서 민간과 매우 밀착되어 있다. 설립년대, 위치, 형태, 명문(銘文) 등에 따라 마을수호, 방위수호, 산천비호, 음력비호, 호법(불법수호), 경계표, 노표(路標), 금표(禁標), 성문수호, 기지(祈子) 등의 여러 기능으로 분류되는 장승과 벽수 가운데 민간에서 집단으로 신앙되어 오고 제례가 이루어진 것은 마을수호와 방위수호의 역할을 맡은 일부 장승에 불과한데, 이들의 올바른 명칭은 법수 또는 벽수라고 하여야 옳을 것이다. 기지장승은 마을 공동 또는 개인적인 신격(神格)으로서 숭상되었고 그 밖에 호법, 음력비호, 노표 등의 기능을 가진 장승들의 주된 임무는 서민신앙과 연결되지 않았어도 간접적이나마 신앙과 접맥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장승과 벽수를 이해하려면 민속신앙, 신선사상, 법수신앙 등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원시시대부터 이미 공동체로서의 생존을 위한 안장과 경제생활의 총족을 위한 근원제와 풍년 기원, 벽사진경의 민속신앙이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근원신화인 고조신의 단군신화 속에는 인간은 하늘의 자손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내세(來世)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 다시 승천할 수 있다는 인내천사상 곧 신선사상이 있었고, 이러한 신선은 신통력을 발휘하여 인간의 재화(災禍)를 막고 복을 주는(邪進魔) 신비스러운 힘(魔力)이 있다고 믿는 법수신앙이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장승은 대부분 7세기 이후의 것으로서 실제로 19세기 이후에 그 유포가 확대되어 독특한 장승문화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추세이다. 장승은 만든 재료에 따라 돌로 만든 석장승과 나무로 만든 목장승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장승의 기원에 대해서는 고대의 성기(性器) 숭배에서 나온 것, 장생고(長生庫, 고려시대 사찰에 설치한 서민 금융기관, 사전(寺田)의 소득을 자급으로 하였으며, 민간의 편익과 사찰자체의 유지·발전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차츰 본래의 취지가 변질되어 고리대금 운영되면서 불교의 문란을 가져왔고 성리학자들에 의한 척불론의 근거가 되었다)에 속하는 사전(寺田)의 표지(標識)에서 나온 것, 목장승은 솟대(蘇塗)에서, 석장승은 선돌(立石)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등의 여러 가지 설이 명칭도 여러 가지인데, 삼국시대에는 장생(長生), 장생표주, 황장생, 국장생 등의 명칭이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한자로 후, 장생(長), 장승(長丞), 장승(長承), 장승(張丞) 등으로 썼고 16세기 이후부터 장승이라고 부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지방에 따라 장승·

장애인종합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사회복지이념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개인 및 단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자격 : 개인, 단체
☐ 모집기간 : 연중
☐ 신청 및 문의처 : 사회복지과(담당자김종배, ☎830-4351)로 신청

전국 유도대회장에 봉사의 꽃 활짝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우리시 삼천포체육관에서 개최한 제44회 대통령배 전국유도대회 행사장에 사천시자원봉사협의회장 김순자 회장과 선수동, 벌운동, 동서동, 향촌동, 동서금동 협의회 회원 30여명은 대회에 참석한 선수 1,500명, 학부모 700명, 심판 및 지도자, 인원 등 3,000여명의 참가자들에게 마실 물과, 커피, 녹차 등을 제공



하여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아낌없는 봉사로 우리 시의 이미 지 제고에 기여했다.

장성 · 벽수 · 법수 · 당산할아버지(당산할배) · 수살목 등의 여러 이름이 있다.

장승의 기능은 첫째 지역간의 경계표시 구실, 둘째 이정표 구실, 셋째 마을의 수호신 역할 등이다. 길가나 마을 경계에 있는 장승에는 그것을 기점으로 한 사방의 주요 고을 및 거리를 표시하였다. 수호신으로 세운 장승에는 이정표시도 없으며, ‘천하대장군’ 류의 표시도 없고 마을의 신앙 대상으로서 주로 재상이나 풀밭명의 방지를 빌었다. 장승은 보통 남녀 쌍을 이루고 있으며, 남상(男像)은 머리에 관모를 쓰고 정면에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 ‘상원대장군(上元大將軍)’이라 새겨져 있으며, 여상(女像)은 관이 없고 정면에 ‘지하대장군(地下大將軍)’,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 ‘하원대장군(下元大將軍)’ 등의 글이 새겨져 있는 통상적인 모습이다. 장소에 따라 채색 · 형상 · 크기 등이 다르나 모양이 괴엄(魁嚴, 머리가 크고 엄하게 생긴 모습)한 집단은 일치한다. 장승에 쓰는 장군명에는 민속적인神明(神名)이 등장하는데 동쪽에 있는 장승에는 동방청제추귀장군(東方靑帝逐鬼將軍), 서쪽에는 서방백제추귀장군(西方白帝逐鬼將軍), 남쪽에는 남방적제추귀장군(南方赤帝逐鬼將軍), 북쪽에는 북방흑제추귀장군(北方黑帝逐鬼將軍)이라는 신명을 써서 세워 추귀(잡귀)를 쫓아내는 민간 신앙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장승을 서낭당 · 산신당 · 솟대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며, 액운이 들었을 때나 질병이 전염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가산의 석장승(벽수)은 조선시대 수도(水路) 연변의 조창(漕倉)과 해운(海運)을 수호하고 역병(疫病)의 폐지를 위해 마을 여러 곳에 석장승(벽수)을 세워 놓은 것으로 보인다. 화강석을 조각한 윗마을어귀 남자상 좌편벽수의 키는 102cm, 가슴둘레 107cm, 우편의 것은 키 118cm, 가슴둘레 112cm이며, 여자상의 좌편은 키 80cm, 가슴둘레 90cm, 우편은 키 87cm, 가슴둘레 88cm로서 2쌍 4개와 이렛마을 조당에 들어가는 어귀(마을 중앙)의 석장승은 남자상 좌편이 키 120cm, 가슴둘레 115cm, 우편이 키 115cm, 가슴둘레 118cm이고, 여자상 우편은 키 93cm, 가슴둘레 80cm, 좌편은 키 83cm, 가슴둘레 89cm의 2쌍 4개로 모두 4쌍 8개로 윗마을 입구와 이렛마을 중앙에 있다. 형태로 보면 관복을 입고 손에 홀을 쥐고 있으며 남장승은 모두 관모같은 사모(紗帽)를 쓰고, 여장승은 머리 위쪽에 빨강은 모양이 있는 등능묘(陵墓)의 무인석과 비슷한 모습으로 한 곳에 남녀 두 쌍씩을 세워 놓고 있으며 몸에는 새끼줄을 감아 놓았는데 다른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줄다리기와 장승의 관계가 여기에 현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산마을은 조선시대 진주교동에 속한 조창(漕倉)으로서, 진주읍 비를통해 사천 · 하동 · 고성 · 의령 · 단성 · 곤양 등 7개 지역의 조세를 모아 경창(京倉)에 수송하였다. 1894년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으로 조창이 폐지될 때까지 매년 조세로 진주읍 곡식을 조운배에 싣고 3월 25일경부터 서울로 운송했다.

이때 이 곳에 있는 조당(租堂)에 조세를 낸 7개 지역 수령들이 모여 공물이 경창(京倉)까지 무사히 수송되기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고 조창을 수호하기 위하여 이들 석장승(벽수)을 세웠다고 전하고 있다. 석장승은 대량 조선조 속중(1054~1105) 이후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가산리의 석장승은 기록이 없어 설치연대가 정확하지 않으나 구전되는 이야기로는 가산에 조창이 설치될 때 좁은 영조(英祖) 36년(1760) 무렵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짐작하여 약 250여년의 역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요즘의 가산리석장승에 지내는 제사는 동제(洞祭) 성격으로 1년에 한번 정월 보름날 새벽 1시에 지낸다. 제관은 마을 사람 중에서 윤번제로 정하나 흥(興)한 일이나 상(喪)을 당한 자는 제외한다. 제물은 돼지머리, 고사리, 콩나물, 단술 등이고 제비용은 동네 계에서 조달한다. 그리고 제사를 끝낸 뒤에는 오편대 놀이를 한다. 가산의 동제(洞祭)인 천룡제(天龍祭)는 1993년부터 정월 대보름날에 지내지만 원래는 정월 초하룻날에 지냈다고 한다. 먼저 설날 그믐날 저녁에 소지를 하고 나서, 정월 초하룻날에 제당에서 제를 지내는데 제를 지내는 시간은 새벽 1시부터 2시까지로 약 1시간 가량이 소요된다. 제가 끝나면 당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풀물페달이 풍물을 쳐서 당당(上堂)의 제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면, 당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제관을 따라 상신장, 하신장의 장승을 거쳐 너무샘, 방갈샘에서도 제를 지냈다. 가산리석장승은 사방신장(四方神將)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거나 손에 들고 있는 물건과 설치수량으로 본 기원에 대하여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조복을 입은 석장승이 홀을 들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칼을 들고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는데, 들고 있는 자세로 보아서 홀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민약에 칼을 들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칼의 손잡이는 위로, 칼끝은 아래로 내려와야 하며, 칼끝이 위로도 받가지 내려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조복을 입은 장승이 들고 있는 손에서 가슴으로 올라와 있다. 칼리런 목에다가 칼끝을 대고 있는 격이다. 비록 잡고 있는 모습이 칼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칼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들고 있는 것이 홀(忽)이라는 의견이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요일 변경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천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품 분리수거 요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수거하오니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시행일 : 2006년 12월 1일부터

《 재활용품 수거요일 》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곤양면	동서금동	정동면		
곤명면	벌운동	사남면	사천읍	동서동
서포면	향촌동	용현면		선구동
		축동면		남양동

※ 공동주택은 변경없이 기존 공동주택별 수거요일 수거
◎ 배출시간 : 수거전날 저녁부터 당일 04:00까지
◎ 배출품목 : 종이류, 고철류, 병류, 합성수지류, 비닐류, 기타
◎ 문의 : 사천시청 환경보호과 청소담당 ☎ 830-4419

긴급복지지원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129번으로

2007. 1. 1부터 푸드뱅크(1377), 아동학대(1391), 노인학대(1389), 위기가정(1688-1004) 및 노인치매(1588-0678) 신고상담전화 ☎129로 통합·운영된다.

사천항공우주엑스포 비상을 펼쳐다



청룡이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상이라 하여 이름이여진 외룡산은 기암괴석과 한려수도가 한눈에 들어와 등산 매니아들에게 가슴을 설레게 하는 사천시의 주산이다. 그산이 시가지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사천은, 먼 옛날 고려 8대 현종이 어릴 때 지관고장을 잊지 못해 ‘풍패의 땅’이라 하여 많은 은전을 베풀어 준 곳으로 고려의 역사와 인연이 깊은 곳이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총만한 평화로운 고장이다. 누렇게 익은 풍성한 들과 흘러가는 흰 구름 그리고 발걸음 어를어 가는 갈들은 그대로 옛 풍경이 되어 포근하고 정감이 느껴진다.

가을이 풍성한 이즈음 지방마다 축제도 열리기 때문이다. 이곳 사천은싱그러운 5월에 열리는와룡문화제로 남도의 문화를 만끽하게 하였고, 10월의 가을 하늘에 펼쳐는 항공우주산업축제는 비상하는 항공우주의 꿈을 펼치는 사천을 펼친다.

‘항공우주의 꿈! 우리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항공우주산업의 메카인 사천에서 민, 관,군이 함께하는 축제다.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에어쇼와 우주전시체험관, 한·중 친선 열기구 대회, 공군 군악대 및 의장대 공연, 전국인라인 대행진, 모형 항공기 대회, 전국 노래자랑, 패러글라이딩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테마가 있는, 미지의 체험을 하는 꿈을 펼치는 축제가 시작된다. 개막에 앞서 오색연막을 뿌리며 태극기를 그려내는 공군의 블랙이글 시범으로 축제의 서막은 열리고, 전야제의 바이올린 연주의 화려한 음률은 가을밤의 축제에 폭젖어들게 한다. 에어쇼는 하루에 오전 오후 두 번으로 나뉘어져 하늘무대를 펼친다. 루마니아팀의 고난도 에어쇼는 아찔하고

스릴감을 주지만 절대 위험한 시범을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안되면 되게 한다’라는 특전용사들이 하늘을 거대한 무대로 만들고, 블랙이글편대의 환상적인 묘기 비행의 감동은 가슴이 벅차오르게 한다. 관·민·군렬기 시범비행은 모두가 하나된 화합의 장을 펼치는 연출이다. 상공에서 수직으로 박차게 하강했다가 상승하는 곡예비행의 모습에서 우리는 살신성인의 정신을 보여 감격에 겨운다. 창공을 주름잡으며 하늘을 수놓는 예술가들, 아니 평화를 수놓는 용사들! 이것만으로 그들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여 많은 은전을 베풀어 준 곳으로 고려의 역사와 인연이 깊은 곳이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총만한 평화로운 고장이다. 누렇게 익은 풍성한 들과 흘러가는 흰 구름 그리고 발걸음 어를어 가는 갈들은 그대로 옛 풍경이 되어 포근하고 정감이 느껴진다.

가을이 풍성한 이즈음 지방마다 축제도 열리기 때문이다. 이곳 사천은싱그러운 5월에 열리는와룡문화제로 남도의 문화를 만끽하게 하였고, 10월의 가을 하늘에 펼쳐는 항공우주산업축제는 비상하는 항공우주의 꿈을 펼치는 사천을 펼친다.

‘항공우주의 꿈! 우리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항공우주산업의 메카인 사천에서 민, 관,군이 함께하는 축제다.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에어쇼와 우주전시체험관, 한·중 친선 열기구 대회, 공군 군악대 및 의장대 공연, 전국인라인 대행진, 모형 항공기 대회, 전국 노래자랑, 패러글라이딩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테마가 있는, 미지의 체험을 하는 꿈을 펼치는 축제가 시작된다. 개막에 앞서 오색연막을 뿌리며 태극기를 그려내는 공군의 블랙이글 시범으로 축제의 서막은 열리고, 전야제의 바이올린 연주의 화려한 음률은 가을밤의 축제에 폭젖어들게 한다. 에어쇼는 하루에 오전 오후 두 번으로 나뉘어져 하늘무대를 펼친다. 루마니아팀의 고난도 에어쇼는 아찔하고

행은 모두가 하나된 화합의 장을 펼치는 연출이다. 상공에서 수직으로 박차게 하강했다가 상승하는 곡예비행의 모습에서 우리는 살신성인의 정신을 보여 감격에 겨운다. 창공을 주름잡으며 하늘을 수놓는 예술가들, 아니 평화를 수놓는 용사들! 이것만으로 그들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여 많은 은전을 베풀어 준 곳으로 고려의 역사와 인연이 깊은 곳이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총만한 평화로운 고장이다. 누렇게 익은 풍성한 들과 흘러가는 흰 구름 그리고 발걸음 어를어 가는 갈들은 그대로 옛 풍경이 되어 포근하고 정감이 느껴진다.

그리고 한 쌍의 장승도 아닌 네 쌍의 장승을 무엇 때문에 만들었을까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는 마을의 자손들이 변창을 기원하기 위해 세웠다는 의견과 마을을 수호하기 위해 세웠다는 의견으로 나누어지는데, 아무래도 자손들의 변창을 위해 세워 놓았다고 보다는 가산리가 조창(漕倉)마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운(漕運)의 안전 운송과 함께 마을의 수호를 위해 세웠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것은 장승제(長丞祭)의 신장축(神將祝)에 ‘상하원신 수호리문 오복금강 구축사마 가끔 불상 청정기계(上下元神守護里門 五福金剛)김완정의 우리들의 고향에서는 五福金剛으로 되어 있고 사천시지에는 五副金剛으로 되어 있음) 驅逐邪魔 呵不詳 淸淨基界’...’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수 있다.

가산리석장승은 문화재로 지정

공동체 창업자금 2개 사업 선정

사천자활후견기관에서는 사천시의 추천을 받아 2006년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SJ미래하우징과 SJ미래봉제가 선정되어 7천만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사천자활후견기관에서는 앞으로 공동체 창업자금을 활용하여 집수리 사무실 및 봉제 판매점을 개설로 사업 활성화 하도록 모범적인 공동체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개를 해 관람객들에게 탑승의 신기한 체험을 가지게 해 준다. 미해병대가 기증한 B-29 폭격기를 비롯, 제트 전투기인 팬텀 등 각종 전투기와 로켓, 폭탄과 탱크 등은 미국이나 영국에서 기증받은 것이라 적혀 있다. 우리가 모르는 항공의 역사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미지의 세계를 체험하게 해 많은 호기심으로 다가온다. 항공우주 박물관의 전시관에는 항공우주에 관한 내용과 한국전쟁 관련물 27가지로 나눠서 일목요연하게 전시되어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는 우주 체험 학습관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곳을, 항공기 발달사에서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항공사적(史蹟)으로 귀중한 자료들이다. 한국전쟁 전시관에서는 6.25 당시 참전했던 항공기 18대, 전차 3대(6. 25 전쟁 당시 북한군 전차 T-34 1대), 김일성 전용차, 미국 및 영국의 전장참전 전차 2대, 화포 3대 등은 한국전쟁의 주요한 전시품으로 한창 당시의 역사 속으로 다시 율미해 보는 소중한 교훈으로 남는다. 행사에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과 외국인도 참여해 선물을 가지게 해 준다. 그동안 진행을 맡은 많은 분들의 애로와 노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이제 항공축제에서 멋진 스릴과 다채로운 체험을 즐기는 모습 해 안으로 발길을 옮기면 황홀한 일몰이 기다린다. 원시어업형태인 죽방렴을 배경으로 구성미가 돋보이는 실안 노을은 사천팔경의 제 2경으로 꼽을 만큼 신비스럽기도 하다. 마지막 정열을 불태우는 낙조의 모습은 오히려 유장해 사천의 비상(飛翔)을 전국으로 세계로 열게 하는 희망으로 기억될 것이다.

발길을 돌리는 관광객 가슴속에는 무언가 다른 흥남함이 있다. 그것은 하늘 바다에서 끝없이 꿈꾸던 광활함과 21세기를 향한 무한한 가능성의 꿈틀거림이다.

【조금된 사천향토문화발전 연구원

제110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우리 언니

- 김남희 -



사천시의회(의장 김현철) 제 110회 제2차 정례회가 12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다.

이번 정례회는 200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계속비 사업

연장 승인안,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펼쳐진다.

사천시의회는 5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회기 결정과 시정연설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및 위원선임, 관계공무원출석요구권을 결정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며, 6일부터는 소관상임위원회별 부의안건에 대한 의안심사를 들어가며 11일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의결된 조례안, 계속비사업 연장승인안,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등을 처리하며, 12일부터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도세입

세출예산안, 2007년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소관부서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안전에 대한 축조 및 예비심사에 들어가며 18일에는 총무, 산업건설위원회현 석회의를 통해 2007년도세입세 출수정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및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한 후 21일 제3차 본회의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의결된 안전을 처리하고 22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후 23일간의 회기를 폐회할 예정이며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2006년도 회기를 마무리 하게 된다.

그래그래 언니야
인자 좀 쉬거래이

외판 삼
아홉 남매
종부(宗婦)로 시집가서
파도만 칠씩대도
오돌오돌 떨었다는
착하고 순박했던
스무살 언니야

육지와 섬을 잇는
연육교가 놓아져도
이때까지 귀향살이
벗어나지 못하고
등 떠놓고 배부르면 그만이지
내사인자 조용히 살란다

빈 등지 끌어안고
초인처럼 살아가는 울 언니

아들아
가만 두거래이
낮선 곳 정 불이느니
제집 온기가 짙이지
하모하모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사는 모습
아름다운 황혼을
구경이나 하거래이

《작가소개》
시인 김남희
한명으로 등단
부산 시인협회 회원
저서) 미완생 인생, 햇살 한줌 사랑 하나

시의회 의원 의정연수

사천시의회(의장 김현철)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간 제주도에서 의원 연수를 실시했다.

충북 영동군의회, 강원도 태백시의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연수는 12월 5일부터 실시하는 2006년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서우선 박사의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의정활동과 공약실천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합법적으로 획득·활용 할 수 있는 의사진행 방법, 핵심을 찌르는 본

회의 질문 및 발언요령,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예산·심사 방법, 조례안을 쉽게 작성하고 심사하는 핵심기법을 집중 연수하고, 박상도 박사의 행정사무감사·조사의 핵심착안사항 및 실천사례를 연수했다.

김현철 의장은 "행정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의원이 공부하지 않으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없다며 공부하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의회는 지난 9월 2일 사천시의회 주관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신해룡 박사를 초청해 진

주의의회와 합동으로 자체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안내

① 수도계량기 보호통에 헌옷, 스치로폼, 신문지 등을 채워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하십시오.
② 노출된 수도관 및 수도꼭지는 반드시 보온재(시중에서 판매)를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③ 과거에 계량기가 동파된 적이 있거나 동파가 우려되면, 혹한시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놓아 수돗물을 적게 흐르게 하여 받아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 계량기 동파 신고 : 사천수도서비스센터 ☎ 080 - 201 - 4000 또는 1577 - 0600

시정 밖 소식

자원봉사자 및 도서관 서포터즈 모집

삼천포도서관은 도서관 사랑을 힘 보태 주실분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문화의 꽃을 피울 공간을 가꾸는데 도움을 주실 개인 및 단체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 ◎ 모집기간 : 연중
- ◎ 접수장소 : 종합자료실(3층)
- ◎ 활동내용
 - ▷ 자원봉사 : 동화책 읽어주기, 구연동화 및 동극, 업무보조, 어린이 및 유아교육프로그램 지도
 - ▷ 서포터즈 : 도서 및 비품기증, 시설개선, 현금지원
- *자원봉사자에게는 기념품 및 도서관 이용의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835-4437로 문의바랍니다)

어린이 독서통장 개설

- 대 상 : 유아 및 초등학생으로 우리도서관 독서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새로 가입한 사람
- 발급 장소 : 사천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 방 법
 - 가. 발급 : 어린이자료실 담당직원이 발급
 - 나. 정리 : 은행의 저축통장처럼 도서관의 대출/반납 카운터 옆에 있는 독서통장 전용프린터기에 넣으면 반납내역을 비롯해 도서명, 지은이, 마일리지 점수 등이 기록
 - 다. 마일리지 운영
 - 1) 마일리지 부여
 - 가) 대출기한 내 정상 반납된 도서 1권에 대해 5점 부여
 - 나) 마일리지가 1,000점이 될 때마다 도서상품권 5,000원권 지급
 - 다) 1년 이내 1개 통장의 모든 면(8면)을 채우는 경우 도서상품권 1만원권 지급
 - 4. 문의 : ☎ 852-4552(사천도서관 어린이자료실)

실버독서회 운영

삼천포도서관에서는 독서토론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폭넓은 독서 생활과 노년의 여가선용을 위한 실버독서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회원을 추가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삼천포도서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모집기간 : 연중
- ◎ 접수장소 : 종합자료실(3층)
- ◎ 모집대상 : 사천시 거주 55세 이상의 어르신
- ◎ 활동내용 : 독서토론 및 친목도모 등 다양한 행사

한글 깨치기 교육

삼천포도서관은 한글을 깨치지 못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실을 개설해 학습에 대한 성취감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일상생활에서 오는 불편함을 없애고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글 깨치기 교실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삼천포 도서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운영기간 : 2006. 12월 ~ 계속
- ◎ 모집대상 : 사천시 거주 누구나
- ◎ 모집인원 : 20명
- ◎ 접수장소 : 종합자료실(3층)
- ◎ 등록방법 : 직접방문 및 전화접수(기타 자세한 사항은 ☎835-4437로 문의바랍니다)

사천시보가 전하는 전국향우동정



1. 제8회 부산마라톤대회 (사천 삼천포에 가보자) 개최

11월 19일 오전 10시 국제신문이 주최하는 부산마라톤대회가 다대포 해수욕장을 출발지로 하는 강변도로 부산육상연맹 공인 마라톤코스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금년이 8회째로 부산주변지역의 유일한 마라톤 풀코스가 있는 대회로 1만3000여 건각들이 참여했고 그리고 가족들과 관광객 등 2만5000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2.충북 공주, 백제마라톤대회서 홍보

11월 12일에는 충북 공주시에서 돌아오기 위해 2006 백제마라톤대회에서 전국의 마라톤러들과 가족 시민들을 상대로 전국의 아름다운 도로 100선에 최고[대상]에 선정된 창선·삼천포 대교와 웅기 중기 섬주변의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우리 고향을 홍보했다.

3. 전북 고창 가을꽃 국화축제장서 홍보

10월 2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개최되는 가을꽃의 제왕, [천하백초]가 시들어 가는데 어이하여 너만은 그렇게 향기롭게 피어나는가?라고 옛 시인들의 칭송이 자자한 국화축제가 이곳에서 열리고 있다.

깊어가는 이 가을을 만끽하고자 전국에서 모여 드는 수많은 국화 팬들을 상대로 우리 고향 사천삼천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홍보하고 있다.

4.재부 삼천포고등학교 총동문회

-제4대 회장 정창식 동문 취임, 신나는 체육행사-

재부삼천포고등학교 총동문회는 11월 12일 오전 10시 금정구 청룡초등학교 교정에서 제6차 정기총회 및 재부 동문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승도 회장에 이어 4대 새 회장에 정창식 동문(14회, 부산 장애인체육회 회장, 동의대 교수) 이 이날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되어 취임했다.

이날 정기총회 참석 외부인사로는 고향에서 교과 삼천포고 구이본 교장선생님과 최학립 전제 총동창회장, 김태구 사무국장, 차장, 재부 삼천포 총동창회장, 재부 삼천포향우회 선·삼천포 대교와 웅기 중기 섬주변의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우리 고향을 홍보했다.

재부 동문인사로는 이광평 정창식 고문과 원정부 명예회장

5. 재부 실안향우회 정기총회

재부 실안향우회(회장 김계두)는 11월 11일 6시 부산시 동구 조방앞 하모니 웨딩타운 2층 로망스 홀에서 금년도를 결산하는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고향 사천시 실안초등학교 교향동문들과 재부 향우들이 대거 참여해 오랜만에 만나 이웃의 정과 관광지로서 달라져가는 고향의 변모 상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부산 실안향우회는 구 삼천포시 지역의 동단위 향우회로서는 그 면면을 잘 유지하며 서로 화합을 잘 하고 있는 향우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4월 봄 [43가보자]운동본부에서 주최한 -세계에 내놓고 자랑하는 한국의 대표적 고도로 사 관광지인 [경주시내 및 벗꽃장에서 행해진 우리고장 홍보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애향활동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애향운동(사천삼천포에 가보자)운동본부 기획홍보팀

수청마을 출향인 고향발전 나서

정동면 수청마을(이장 정의남)은 지난 추석절을 기해 출향인을 중심으로한 수청발전추진위원회(위원장 최관경)를 발족했다. 수청마을은 1960년대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산지를 개발하여 과수원을 조성하고, 해마다 침수 피해가 극심한 저습지에 하천둑을 쌓아 문전옥답을 만들어 자조 자립 협동의 기풍을 간직해 1970년도

전국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수청마을하면 사천돈(墩)과 과수원, 아름답고 잘사는 마을로 명성이 높았다. 한때 자랑스럽고 모범적인 마을이었던 수청마을이 젊은이들의 도시 진출과 고령화 등으로 이제는 농촌에서도 낙후된 마을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출향

인사들이 고향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최관경(63세, 부산 교대교수)씨를 위원장으로 하는 30여명의 뜻이 있는 출향인 사들이 수청발전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수청발전을 위한 10대 과제를 설정하고 2009년까지 1억원의 발전기금을 조성기로 했다.(기금모금주좌 : 농협 839-01-041305 수청발전위원회)

우박피해 단감 구매운동

한국수자원공사 사천권관리단은 1차 1차 자매결연 마을인 정동수청마을이 지난 11월 5일 갑자기 내린 우박으로 인해 단감수확기에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단감구매운동을 추진했다. 처음에는 사천권관리단에서 15kg 50박스를 구매하였는데 공사 내 타 사무소에까지 이 소식이 알려

지면서 남강관리단 20박스, 충청지역본부 100박스 추가구매가 이뤄지게 됐다. 직원들은 수확기에 자연재해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피해농가를 도우면서 한편으로 맛있는 단감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무척 흡족해 했다.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 사



천권관리단은 지역민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사회공헌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우리 고장의 지역 고등학교를 널리 알려 우수한 인재가 우리 고장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지역 고등학교를 소개코자 합니다. 많은 우수 인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계재순서는 지역별로 배치되었습니다>

[사천고등학교-사천읍 정의리 소재]

근면 성실한 한국인 육성



사천읍에 위치한 사천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1984년 4월 학교법인 구계학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1986년 3월 2일 개교한 이래 2006년 제18회 졸업생(졸업생 총원:4,266명)을 배출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사천고등학교는 "인격과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에 기

여할 수 있는 근면 성실한 한국인을 육성한다"는 교육목표아래 송호연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총 46명의 교직원과 각 학년 6개학급 총 18학급의 이상적인 학급규모로 총 510명의 학생이 일심동체가 되어 대학진학에 매진하고 있다.

사천고등학교는 사천읍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산성공원(山城公園)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 환경이 자연과 어우러져 숲속의 궁전같은 아름답고 쾌적한 분위기에 녹색사업의 일환으로 생태공원조성과 교내신축로를 정비하여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준별 이동수업과 방과 후 교육활동, 야간 특별강좌, 부진아지도반 등을 개설하여 자신의 능력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실시하고, 특기·적성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교과수업 이외의 재능을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2006학년도 2학기에 부임한 송호연 교장선생님은 사천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본교가 그 인재들을 모아 최고의 엘리트로 육성시키려는 프로젝트를 구상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사장과 교직원도 각각 장학회를 마련하고 우수학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곤양고등학교-곤양면 서정리 소재]

늘푸른 곤양고



2. 교훈
● 自覺 ● 誠實 ● 協同
3. 분교 진학 시 유리한 점
▷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공립 인문계고등학교로서 우수한 교사가 많습니다.
- 실질적인 수준별 이동수업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과 시작 전 10분 책읽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야간 자율학습을 교사의 지도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군부대 장병을 지원받아 영어회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수준별 보충학습을 무료로 학기 중·방학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입생에게 겨울방학 중에 미리가보는 학교를 운영합니다.
▷ 좋은 내신으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쉽다.
- 학생부 반영비율(내신 성적)이 50%로 확대되었습니다.
- 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내신 등급을 받기가 쉽습니다.
- 분교는 농어촌 특별전형 선발 및 지역 균형 선발이 확대되었습니다.
▷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
- 타 지역으로의 진학에 비해 경제적, 시간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 인제육성 장학금 등 장학금 혜택이 학생수에 비해 많습니다.
(2006년 1학기 10개 단체 943만130원이 27명에게 지급 됨)
- 사천시에서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합니다.

1. 학교연혁
-1973년 3월 7일 개교
-1976년 2월 28일 제 1회 졸업(72명)
-2005년 6월 23일 윤맹기 16대 교장 취임
-2006년 2월 16일 제 31회 졸업(40명)
졸업생 총 수 : 3,128명

◎ 학교 주소 : (664-915)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50
입시상담교사 : 교무부장(심재동), 011-851-5863
☎ (055)853-0122, http://gonyango.hs.kr/

[사천여자고등학교-사천읍 평화리 소재]

꿈과 미래가 있는 사천여자고등학교



사천여자고등학교는 1967년 3월에 지역사회의 인재 육성을 위해 사천여자상업고등학교로 개교한 이래 지금까지 약 1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2005년 3월부터 사천여자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근면, 성실, 창조'라는 교훈으로 '유비쿼터스 시대'를 주도할 지혜롭고 건강한

학생 육성을 위해 선생님과 학생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급변해가는 시대 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학교입니다.

첫째, 정보통신교육원의 협력 구축으로 전교생에게 홈페이지 제작, 디카 사용법, 플래시, 웹그래픽 등 방과 후 정보화 교육을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둘째, 분교는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천 항공산업체, 주식회사 삼성 및 LG 등 대부분이 대기업에 취업 취업률 99%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셋째, 분교는 진주연암공업

대학, 사천항공기능대학, 진주보건대학, 남해전문대학, 거창전문대학, 마산대학, 부산여자대학 등 경남지역의 8개 대학과 연계교육을 맺고 있어, 재학 중 대학에서 대학교수가 실시하는 연계교육을 받은 후 본인이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이 가능하며 진학률 100%를 자랑하는 학교입니다.

마지막으로, 분교는 교내장학금, 실업계고교장학금과 사천시 우수학생 장학금 등 각종 17종의 장학기관으로부터 분교재학생 250명중 230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어 전교생 중 90%의 학생이 장학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경남자영고-정동면 화암리 소재]

21세기를 주도할 신지식 농업인 육성



경남자영고는 1952년 개교해 급근 53회 졸업생을 포함 6,757명의 인재를 배출해 사회 각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계 특수목적 고등학교이다.

학교의 특색으로는 분교 재학생들은 3년간 수업료 면제 및 무료 기숙사 생활을 하며, 매년 새마을 장학금을 수혜하는 물

론 재학 중 해외 연수로 일본과 중국의 농업 현장을 방문해 농업의 세계화에 발맞추어 선진 농업 기술을 익히는데 힘쓰고 있다.

특히 2006학년도에는 학부모, 학생, 동창회, 교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학생들의 삶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전국 1,000여명이 참가한 '제35년차 전국 영농 전진대회' 사육 분야 과제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영농 우수 고교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앞으로 학교가 나아갈방향으로 분교의 교육 목표를 '21세기를 주

도할 신지식 농업인 육성'에 두고 중점 과제로 다정한 인사하기, 좋은 책 읽기, 기초지식과 기술 신장, 생활외국어 구사 능력 배양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21세기 지식 농업을 선도할 신지식 농업인 육성을 위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 운영과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신생님은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는 즐거운 학교 분위기를 조성해 감동 주는 교육, 신뢰 받는 학교로 학생들의 소중한 꿈과 소망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연락처 : ☎055-855-0223
▶ 학 교 홈 페이지 : http://www.jayoung.hs.kr/

[용남고등학교-용현면 선진리 소재]

세계화 시대, 미래의 꿈은 용남고등학교에서...



용남고는 개교 38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속에서 명문 인문계 고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병풍처럼 학교를 감싸고 있는 외룡산의 정기와 선진성의 화려한 빛깔 향기를 듬뿍 받은 쾌적한 교육 환경속에서 오로지 한 길 제자사랑으로 뭉쳐진 교사들의 열과 성을 다하여 지도한 결과 지난해는 졸업생 100%가 대학에 진학했다.

세계화의 시대, 미래의 꿈을 여는 용남고등학교의 'Top 5 Vision'을 제시 합니다.

첫째,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우리 학교에는 있습니다. → 2008학년도 내신 반영 비율이 향상됩니다.(50%이상반영: 129개교)

둘째, 학생 하나하나에게 열과 성을 다하는 교사들이 우리 학교에는 있습니다. → 학생유치에서 진학까지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셋째, 쾌적한 환경과 훌륭한 시설들이 우리학교에는 있습니다. → 스스로 공부하는 방 50석의 독서대를 구비한 구담학과관과 마

음껏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정통관)이 항상 학생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넷째, 현대식으로 도서관을 새롭게 단장하여 독서지도를 통한 학습방법 개선과 논술지도를 우리 학교는 대비하고 있습니다. → 1,000여종의 신간도서와 19종의 각종 DVD, CD 등의 비도서서를 구입하여 즉석에서 다양한 과목의 수업이 가능한 36석의 좌석과 브라운징코너 등의 설치로 학생들이 보급자료대금의 반값이(도서관 이름)가 있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장학금이 우리 학교에는 있습니다 → 동백 장학금의 10종으로 총 3200만원 지급 (2005학년도 지급된 금액임)

[삼천포여고-동금동 소재]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여성인재 배출



삼천포여자고등학교는 1963년 개교하여 50여년 간 이 지역의 여성교육의 전당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통과 17학급, 정보처리과 6학급으로 구성되어 하춘길 교장선생님과 62명의 교직원이 전인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1982년 농구부 창단 이래 전국대회 우승 36회, 준우승 16회 등으로 우리 사천시의 위상을 전국에 드높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첫째, 학생 수준을 고려한 교육시스템 운영으로 수준별 학급 편성을 통해 우수학생은 문정관 입소, 개별화 교육, 논술특강 실시, 일반 학생은 중요 교과목 기본과정 습득, 방과 후 영역별 수준별 보충학습 등 기본 학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성 교육 실천덕목으로 3행(行) 3무(無) 즉, 수업 집중 잘하기·인사 잘하기·교실 깨끗하게 하기와 폭력·따돌림·흡연 없애기 등 기본 생활습관 형성 지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셋째, 문정관, 글마루(도서관) 및 최신식 컴퓨터와 다양한 기자재를完비한 멀티미디어실, 종합실습실, 문서작성실, 과학실험실 등이 실제 수업에 활용되어 수업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넷째, 성적우수 장학금, 동창회 장학금, 기타 기업·지역 장학금 등 폭넓은 장학제도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맘껏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삼천포공업고등학교-동금동 소재]

미래사회의 기술인 양성



1960년 개교한 삼천포 공고는 공업기술분야에 남다른 소질과 적성, 그리고 재능과 흥미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소그룹 책임 학습 등으로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서의 자격증 취득은 물론이고 동일계 연계교육을 통한 대학진학 등에 아주 유리하며, 미래사회의 기술인 및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학교입니다. ? 본교의 자랑(본교 진학했을 때 유리한 점) 가. 각 대학과 연계교육 및 동일계열의 특별전형 진학, 내신 성적 획득이 유리하여 수시모집 등으로 대학진학이 용이합니다. 나. 100%에 가까운 학생들이 개인지도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100% 취업이 보장될 뿐 아니라 졸업후에도 선배와 학과별로 책임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 전체 학생의 90%가 각종 학비지원금이나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학교직영 급식소 및 현대식 기숙사 시설을 완비하여 원거리 학생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그동안 확충되고 보완되어 온 첨단 현대식 설비 및 공동실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천포중앙고등학교-벌리동 소재]

삼천포 교육의 역사를 새로 쓰는 중앙고



◎ 중앙고의 감점 하나 -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
1. 입시에 적합한 교육과정
· 1학년 재량활동 과목과 2,3학년의 선택과목의 이수 시기를 조정하여 수시모집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학년별 수업 부담을 최적화했습니다.
☞ 교육과정은 본교 홈페이지 참고
2. 진로선택을 위한 맞춤형 자율수업
· 교육과정에 표시된 과목 외에도 학생들의 진학을 위해 필요한 과목은 수강인원에 관계없이 강좌를 개설해 무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실(진학실, 진로실)에서 소수(2~5인)를 상대로 과외 같은 수업을 진행합니다.
· 첨단시설을 갖춘 "논술지도실" 운영으로 학생들 대학입시에 맞춘 전교사가 논술 지도를 합니다.

◎ 중앙고의 감점 둘 - 전통으로 다져진 면학 분위기
1. 최상위 학생을 위한 "청운재" 운영
· 최상위 학생을 위해 초현대식 개인 시설을 갖춘 "청운재"에서 특별수업과 교과 질문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유형별 교내 방과후 학습 운영
· 학년별 자율 학습실(열공1실, 열공2실)운영 - 전교사가 관리하는 최적시설과 학습 분위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 예체능계 학원 수강 학생과 보습학원 수강 학생을 위해 별도의 자율학습실(정독실, 모둠학습실, 도서실)을 개방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됨이 없이 개인 실정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삼천포 교육의 틀을 혁신시킨 중앙고. 항상 도전과 개혁 정신으로 지켜온 우리 지역의 꺼지지 않는 배움의 전당입니다. -

[삼천포고등학교-벌리동 소재]

문천(文千)과 무만(武萬)의 양양한 글바다!

삼천포고등학교에서



도전과 개혁의 정신을 가진 학생을 기다립니다.
■ 나는 어떤 대학에 갈수 있을까?
□면도별 대학 진학 자료 (내신 석차 백분율에 따른 구간별 비교표)

성적	2004		2005		2006	
	학생수	진학대학	학생수	진학대학	학생수	진학대학
5% 이내	3명중	서울대 사회1 한국항공대 1 단국대 1	3명중	서울대인문정보1 서울대기계항공1 서울대지구교육1	1명	한국외대 1
20% 이내	24명중	부산교대 1 서울시립대1 부산대3 성대1총신대1 세종대1 한국항공대1 그 외 12	16명중	연세대 부산대1 성공관대기계 1 홍익대영어교육1 경상대5 그 외 지방유수대 6 재수	9명	부산대2 명지대1 한국해양대2 울산대1 대구대1
50% 이내	51명중	인제대4 부경대3 경상대12 동아대2 충남대1 원광대2 창원대7 그 외 지방 대 20명	70명중	경상대28 청원대10 경남대간호1 부경대8 그 외 지방유수대 18 재수5	38명중	홍익대1 국민대 2 경북대1 인현대1 부경대2 2인제대2 경남대3 그 외 28명
50% 이후	79명중	경상대3 청원대1 외	75명중	경상대21 한국해양대2 외	103명중	계명대1 경남대12 외

■ 무엇이 유리한가?
○ 교과목 수준별 이동수업: 2005학년도부터 주요 교과목은 1,2,3학년 시행중이므로 중위권 학생에게 학습효과가 큼이다.
○ 상위성적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지 않기 때문에 극도로 경쟁력이 강화 되었습니다.
- 1학년 중학교 성적 5%이내 10명, 2학년 5%이내 12명
■ 장학금은 많이 주는가?
(사천시 인재육성 장학금 수혜대상 2006년도 29명 8천2백만원)
제외한 금액입니다.)
■ 삼천포고등학교의 새로운 이름 - 문/천/관
○ 인재육성의 요람인 문/천/관에서 미래지향적인 학생을 교육시켜 전국 최상위등급의 수능 점수를 받게 합니다.
■ 상설 입시상담
- 김태원 019-9102-0569, 김덕현 010-5554-9958

항공스포츠(Air Sports) - 패러글라이딩(Paragliding)



이번호부터는 패러글라이딩 (Paragliding), 행글라이딩 (Hanggliding), 스카이다이빙 (skydiving), 열기구(Hot Air Balloon)와 초경량 항공기등의 항공스포츠(Air Sports)에 대해 연속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패러글라이딩(Paragliding)은 패러글라이더(Paraglider)로 활공하는 것을 말하며, 항공스포츠의 꽃으로 불리는 운동이다. 패러글라이더(Para-Glider)는 낙하산(Parachute)과 행글라이더(Hang Glider)의 특징이 조합된 우수한 비행체이다. 즉 낙하산의 안정성과 행글라이더의 활공성을 결합한 것으로, 매우 뛰어난 비행안정성과 조종성, 그리고 활공성을 보유하고 있다. 패러글라이딩은 스카이다이빙처럼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체(Canopy)를 연막에 미리 펼쳐 놓고 조종사가 하네스(Harness)라고 하는 비행 장구를 착용한 다음 기체와 연결한 후 바람을 맞받으며 내리막길을 약 10m 정도 달려가면 양력이 발생되어 이륙이 된다. 이렇게 발

로 달려 이륙하는 방식은 행글라이더와 같다. 이륙된 후에는 의자처럼 되어 있는 하네스에 편안히 앉아 멋진 광경을 감상하면서 비행을 즐기면 되는데, 비행속도가 25~50km/h로 행글라이더의 35~120km/h보다 느리므로 비행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초심자들의 직선비행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조종은 낙하산과 마찬가지로 양손에 잡고 있는 조종줄을 당겨 하게 되는데, 방향전환과 회전은 원하는 쪽 조종줄만 당기면 된다. 양쪽 조종줄을 한꺼번에 당기면 속도를 줄일 수가 있다. 장비는 10kg 정도 후로 가볍고, 배낭처럼 부피가 작아 이동이 간편하며, 특별히 접고 펴는 기술이 필요치 않아 쉽게 다룰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1984년 유럽의 알프스 산을 중심으로 등산가들이 사각형 낙하산을 개조한 캐노피를 가지고 정상의 급경사지에서 달려 이륙하기 시작한 것이 본격적인 패러글라이딩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1986년에 처음 도입이 되었고,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1989년 10월에 첫 동호인 친선대회가 개최되었고, 세계대회는 1989년도에 오스트리아에서 제1회 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이때부터 출전하게 되었다. 첫 출전에서 세계 20위권밖에 머물던 우리나라는 국내 제조업체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1993년 제2회 대회부터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패러글라이딩 강국으로 도약하게 되었다.

패러글라이딩의 경기에는 공식경기과 비공식경기가 있다. 가장 권위있는 세계선수권대회와 항공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월드컵에어게임을 비롯하여 한국선수권대회, 국가대표선발 리그전 등 타이틀이 걸린 대회가 공식경기이다. 그리고 비공식경기는 기량향상 및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이를 경기로 각 지방자치단체 주최 대회와 공군참모총장배대회, 그리고 단일 클럽이 주최하는 전국선수대회와 지역별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선수대회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늘을 나는 것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달리 3차원의 공간을 움직이는 운동이므로 배워야 할 점이 더 많고,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위험요소도 더 크다. 그러므로 패러글라이딩은 혼자 독학으로 배우기는 어렵고 전문가로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한다.

김형태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재래시장의 멋과 맛



집안살림을 꾸려가는 30대 후반의 전업주부로서 나는 재래시장을 애용한다. 대다수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차장이 있고 진열된 물건을 깨끗하고 요즘결제가 간단하다는 이유로 할인마트나 백화점 등을 이용한다. 나는 아이를 웃이나 공산품 등을 살 적에는 간혹 대형매장을 가지만 과일, 채소, 식량이나 기타 소소한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재래시장을 즐겨 찾는다. 내가 사는 주변에는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재래시장이 있고 5년 전부터는 5일마다 서는 민속5일장도 있다.

재래시장에 가면 우선 인간미가 풍긴다. 약간 저저분한 모습이 인간적이고 먼지가 푹푹 날리는 와중에서도 시장 상인들의 활기찬 모습에서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재래시장에는 담이 있어서 좋다. 깔끔하고 정갈한 맛은 좀 떨어지지만 값이 싸고 덤을 얻는 즐거움이 있다. 파장 무렵에 덤을 두 배 이상 얻을 수 있는 행운도 있다. 약간 너저분한 먹물거리기를 집으로 가져와 다듬다 보면 버리는 것도 있지만 어

졌든 대형매장에서 산물건보다는 양이 많다. 그리고 재래시장에서는 이웃과 어울려 마유했 수도를 떨 수도 있다. 간혹 막걸리와 메밀묵으로 허기를 채우며 아이를 낳고 여똥까지 호떡을 먹으며 이웃을 흥보거나 시샘하기도 한다. 시장 상인과 허물없는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고 다른 손님과 세상사는 얘기를 부담없이 나눌 수 있어서 좋다. 물건 판다고 고래고래 소리치르는 장꾼들의 모양새는 엉악함이 한 판의 육자배기이다. 우리 민족의 애환과 인간애가 물씬 풍긴다.

요즘 곳곳에 대형매장이 들어서며 재래시장은 위기를 맞고 있다. 시장의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면 퇴락할 수 밖에 없는게 당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재래시장은 존망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대형매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손님을 억지로 끌고 올 수도 없다. 재래시장도 통합상품권 발급, 신용카드 결제, 주차장 설치 등 손님 유인책을 모색하며 나름대로 살길을 찾고 있지만 큰 성과는 없는 듯하다. 편리와 단순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재래시장은 거주장스러운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소박한 사람들의 아기자기한 일화 연출되는 삶의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재래시장이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멋과 맛을 영원히 느낄 수 있게 대형매장과 재래시장의 조화로운 상생의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옥출 · 부산광역시 사하구

힘의 논리

세상의 모든 이치는 힘의 논리에 의해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에서부터 조직, 집단, 국가에 이르기까지 힘이 있어야 큰소리를 치고 위세를 부리며 영구히 존속될 수 있다. 이는 비단 인간사회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세계나 세균, 벌레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진리처럼 통용되고 있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사회로 적자생존의 세계인 셈이다. 그러므로 힘이 없으면 시련을 겪거나 도태되거나 멸망하는 게 세상사의 하나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사회에서도 힘이 없으면 굶신거리야 하고 기업이나 여타의 조직에서도 힘이 없으면 침체를 겪거나 다른 힘 있는 조직에 흡수 내지는 합병되기도 한다. 힘은 재력, 권력, 능력, 창의력, 군사력, 단결력, 경제력, 과학기술력 등 모든 것이 힘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 위기나 시련을 겪은 경우가 잦았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외세 침략으로 점철된 역사였다. 겉으로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해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사실은 힘이 없어서 침략하지 못했고 아무나 건드리는 동네북처럼 나약해 중국, 몽골, 일본 등으로부터 무수한 외침을 당한 것이었다. 힘이 강했다면 우리의 영토가 만주벌판으로 넓어졌을 수도 있고 대마도도 한국의 땅이 될 수 있었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힘이 나약하니 크고 작은 전쟁의 참화를 겪으며 고난과 역경의 가시밭길을 걸어온 것이다.

지금도 힘이 약해 주변 열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세계 12위 안팎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지만 여전히 지구촌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있고 주변의 강대국인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은 시기각각 한국에서의 세력 확장을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합병정책으로 남북간에 위기가 좀 해소됐지만 북한은 핵폭탄과 미사일을 만들어 위기를 조장해 평화통일의 기미는 아직도 요원한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살아갈 길은 오로지 막강한 힘을 기르는 일이다. 국방, 경제, 정치, 과학기술 등 전반에 걸쳐 총력을 기울여 힘을 길러야 먼 나중에 남북통일이 되어도 혼란을 덜 겪고 설혹 북한의 침략이 있어도 단호히 물리칠 수 있다. 또한 중국이나 일본과의 영토분쟁에도 과감히 대응할 수 있다. 전쟁은 전쟁을 준비하는 자를 피해하고,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달려든다는 말이 있듯이 만일의 전쟁에 대비해 예비무관의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로마 로마의 영웅 베제타우스도 '평화를 원하거나 전쟁에 대비하라'고 했다.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건 만고불변의 진리임을 깨달아 힘을 기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박정도 · 부산시 사하구 대대2동

사천향 테두리풀 따라

사천시 경계종주(境界縱走)(9)



사천향 육지면의 끝, 굴포 방조제와 굴포만

사천시 경계종주! 육지면으로 는 오늘이 최종구간이다. 지리산에서 뻗어 내린 낙남정간에서 방향을 달리하여 숨 가쁘게 달려왔던 산줄기도 이제 서서히 그 맥을 다하는 이렇사 끝자락인 진동고개에 선 것이다. 진동고개는 곤양과 진교를 연결하는 20년 지방도로서 원뿔뾰를 앞에 서 1005년 지방도로 만났다. 왼쪽으로 무고리는 비닐하우스단

지가 들관을 가득 메우고 있다. 1997년 수출농단으로 조성하여 16농가가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무고리에영농조합법인(대표 조강태)을 설립했다. 주작목은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를 생산하고 있으며 일본수출로 외화획득은 물론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무고리는 본래 서포면이었는데 1983년 2월15일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맥사리와 한

계 곤양면으로 편입되었다. 도로를 건너 산자락을 올라 서면 반나루 발을 지나서 시냇계는 마루금으로 이어진다. 희미한 산길은 잠시 후 흔적도 없이 다시 잡목과 가시덤불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뻥뻥이 들어선 울창한 나무숲은 한낫인데도 어렵다.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의 굉음만이 방향을 짐작할 뿐, 때론인지 멧돼지 흔적마저도 찾을 수 없는 아예 지독한 구간이다. 경계종주에서 첫날 정동면 400m봉에서 소곡리로 내려올때 침낭을 계곡과 함께 최악의 구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한동안 잡목 숲을 뚫고 산줄기를 가름 하여 남해고속도로가 지나는 진교터널 위를 지난다. 대형 테두리를 밟아내지 않고 잘 내려왔다고 생각하며 165m봉을 올랐다. 바로 곤양면과 서포면 그리고 진교면의 분기점이다.

사천향 테두리! 이제는 서포면이다. 서포면은 사천에서 제일 서쪽에 위치하며 육지면의 끝자락으로 하동군 진교면과 경계한다. 본래 곤양군 서부면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사천군에 편입됐다. 이제 반

치고개로 내려서기만 하면 힘든 구간은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면 서 지도를 확인하지도 않고 산줄기를 따라 내려왔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큰 실수를 한 것이다. 받치고개라 생각하고 도로에 내려서고 보니 咸安趙氏의 산소가 있는 산길 모퉁이다. 도로가져서 있는 표지판을 보니 진교면 이어야 할 이정표가 서포면으로 되어 있다. 분기점인 165m봉에서 무심코 뚜렷한 산줄기를 따라 내려갔던 것이다. 지도를 확인해보니 이 산줄기는 곤양면과 서포면을 경계하는 산줄기였다. 다시 내려왔던 길을 되돌아올라 분기점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서면 받치고개에 도착한다. 바로 곤양과 진교를 잇는 1002번 비포장도로서 산골 깊숙이 꼬불꼬불 자갈길이 정겹다. 그러나 남해고속도로가 새로 나면서 구 남해고속도로가 지방도 역할을 하다보니 이 도로를 산줄기 상부를 잃고 지나는 차량도 길손마저 없는 실정이다.

받치고개에서 도로를 건너 140m봉을 오른다. 역시 길은 없다 도로도 가깝고 마을 뒷산인데 왜 이렇게도 길이었을까? 허물어진 방공호 같은 구덩이가

자주 눈에 띈다. 여기서도 잠시 길을 잃고 헤매야만 했다. 1003번 지방도 고개인 줄 알고 내려섰는데 마을이 나오고 민가의 문패를 보니 하동방 화포마을 이다. 급히 되돌아 산으로 올랐다. 동네사람들은 웬 사람이 산에서 내려오다니 도망치듯 도로 산으로 올라가는 나그네를 보고 의아하는 눈치였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줄기를 따라 내려서니 포장도로다. 어느덧 해는 기울고 있다. 이제야 서포와 진교를 잇는 1003번 지방도로인 것이었다. 왼쪽으로 서리가 소뿔이 보이고 바로 아래는 앤 모델 이었다. 여기까지 웬 모델이.....? 교를 잇는 1002번 비포장도로서 산골 깊숙이 꼬불꼬불 자갈길이 정겹다. 그러나 남해고속도로가 새로 나면서 구 남해고속도로가 지방도 역할을 하다보니 이 도로를 산줄기 상부를 잃고 지나는 차량도 길손마저 없는 실정이다. 받치고개에서 도로를 건너 140m봉을 오른다. 역시 길은 없다 도로도 가깝고 마을 뒷산인데 왜 이렇게도 길이었을까? 허물어진 방공호 같은 구덩이가

자주 눈에 띈다. 여기서도 잠시 길을 잃고 헤매야만 했다. 1003번 지방도 고개인 줄 알고 내려섰는데 마을이 나오고 민가의 문패를 보니 하동방 화포마을 이다. 급히 되돌아 산으로 올랐다. 동네사람들은 웬 사람이 산에서 내려오다니 도망치듯 도로 산으로 올라가는 나그네를 보고 의아하는 눈치였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줄기를 따라 내려서니 포장도로다. 어느덧 해는 기울고 있다. 이제야 서포와 진교를 잇는 1003번 지방도로인 것이었다. 왼쪽으로 서리가 소뿔이 보이고 바로 아래는 앤 모델 이었다. 여기까지 웬 모델이.....? 교를 잇는 1002번 비포장도로서 산골 깊숙이 꼬불꼬불 자갈길이 정겹다. 그러나 남해고속도로가 새로 나면서 구 남해고속도로가 지방도 역할을 하다보니 이 도로를 산줄기 상부를 잃고 지나는 차량도 길손마저 없는 실정이다. 받치고개에서 도로를 건너 140m봉을 오른다. 역시 길은 없다 도로도 가깝고 마을 뒷산인데 왜 이렇게도 길이었을까? 허물어진 방공호 같은 구덩이가

로 해는 기울고 석양이 눈부시게 물들어 있다. 석양에 빛나는 역새는 그리 번지방도 고개인 줄 알고 내려섰는데 마을이 나오고 민가의 문패를 보니 하동방 화포마을 이다. 급히 되돌아 산으로 올랐다. 동네사람들은 웬 사람이 산에서 내려오다니 도망치듯 도로 산으로 올라가는 나그네를 보고 의아하는 눈치였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줄기를 따라 내려서니 포장도로다. 어느덧 해는 기울고 있다. 이제야 서포와 진교를 잇는 1003번 지방도로인 것이었다. 왼쪽으로 서리가 소뿔이 보이고 바로 아래는 앤 모델 이었다. 여기까지 웬 모델이.....? 교를 잇는 1002번 비포장도로서 산골 깊숙이 꼬불꼬불 자갈길이 정겹다. 그러나 남해고속도로가 새로 나면서 구 남해고속도로가 지방도 역할을 하다보니 이 도로를 산줄기 상부를 잃고 지나는 차량도 길손마저 없는 실정이다. 받치고개에서 도로를 건너 140m봉을 오른다. 역시 길은 없다 도로도 가깝고 마을 뒷산인데 왜 이렇게도 길이었을까? 허물어진 방공호 같은 구덩이가

로 해는 기울고 석양이 눈부시게 물들어 있다. 석양에 빛나는 역새는 그리 번지방도 고개인 줄 알고 내려섰는데 마을이 나오고 민가의 문패를 보니 하동방 화포마을 이다. 급히 되돌아 산으로 올랐다. 동네사람들은 웬 사람이 산에서 내려오다니 도망치듯 도로 산으로 올라가는 나그네를 보고 의아하는 눈치였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줄기를 따라 내려서니 포장도로다. 어느덧 해는 기울고 있다. 이제야 서포와 진교를 잇는 1003번 지방도로인 것이었다. 왼쪽으로 서리가 소뿔이 보이고 바로 아래는 앤 모델 이었다. 여기까지 웬 모델이.....? 교를 잇는 1002번 비포장도로서 산골 깊숙이 꼬불꼬불 자갈길이 정겹다. 그러나 남해고속도로가 새로 나면서 구 남해고속도로가 지방도 역할을 하다보니 이 도로를 산줄기 상부를 잃고 지나는 차량도 길손마저 없는 실정이다. 받치고개에서 도로를 건너 140m봉을 오른다. 역시 길은 없다 도로도 가깝고 마을 뒷산인데 왜 이렇게도 길이었을까? 허물어진 방공호 같은 구덩이가

로 해는 기울고 석양이 눈부시게 물들어 있다. 석양에 빛나는 역새는 그리 번지방도 고개인 줄 알고 내려섰는데 마을이 나오고 민가의 문패를 보니 하동방 화포마을 이다. 급히 되돌아 산으로 올랐다. 동네사람들은 웬 사람이 산에서 내려오다니 도망치듯 도로 산으로 올라가는 나그네를 보고 의아하는 눈치였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줄기를 따라 내려서니 포장도로다. 어느덧 해는 기울고 있다. 이제야 서포와 진교를 잇는 1003번 지방도로인 것이었다. 왼쪽으로 서리가 소뿔이 보이고 바로 아래는 앤 모델 이었다. 여기까지 웬 모델이.....? 교를 잇는 1002번 비포장도로서 산골 깊숙이 꼬불꼬불 자갈길이 정겹다. 그러나 남해고속도로가 새로 나면서 구 남해고속도로가 지방도 역할을 하다보니 이 도로를 산줄기 상부를 잃고 지나는 차량도 길손마저 없는 실정이다. 받치고개에서 도로를 건너 140m봉을 오른다. 역시 길은 없다 도로도 가깝고 마을 뒷산인데 왜 이렇게도 길이었을까? 허물어진 방공호 같은 구덩이가

삶의 길잡이 명심보감③

부모를 섬김은 자식의 도리

原文: 子曰孝之事親也, 是居則致其敬하고, 養則致其樂하고, 病則致其憂하고, 喪則致其哀하고, 祭則致其嚴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100가지 행실이 있다하여도 효도가 제일 큰 것이다. 즉 남의 자식 된 자는 진실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부모 섬기는 도리를 잊지 않고 언제나 그 공경하는 마음을 다한다면, 즉 이 공경하는 마음속에 있으며 이 마음으로 부모를 봉양하면 부모는 즐거워하고, 병을 당하면 근심하고, 상사를 슬퍼하고 제사를 지내면 엄숙히 한다'란 뜻이다. 조선조 선조 때의 명신이며 거유(巨儒)이신 윤곡이(栗谷李珣)선생은 중종 31년(1536) 강원도 강릉 북평군(北平府)

위에서 태어났다. 그의 시조(始祖)는 고려 중랑장 둔수(敦守), 그의 부친은 찬성공 원수(元秀)요 외조부는 명현(名賢)이던 진사(進士) 신명화(申命和)며 모친은 저 유명한 신사임당(申師任堂)으로 부모 양가가 모두 충효의 명문으로 윤곡은 그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었다.

윤곡이 다섯살때의 일이다. 어머니 사임당이 이를 모를 병에 걸려 증세가 매우 위독하였다. 어린 윤곡은 병간호와 약지침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성껏 하면서 어느만큼 기도를 드릴 생각을 했다. 그리하여 남 몰래 외가의 사당에 들어가 경건하게 꿇어 엎드려 어머니의 병환이 빨리 쾌차하기를 하느님께 빌고 또 빌

었다. 갑자기 없어진 어린 것을 찾아 병석의 환자가 씻은 듯 쾌유 하였다. 이로부터 윤곡에게는 단지효자(斷指孝子)란 호나와 명칭이 붙게 되었다. 윤곡은 효를 모든 덕행과 인경의 근본으로 보았다. 인간의 온갖 선행(善行)중에서 효는 으뜸으로 생각 하였다. 선비의 모든 행실은 효제(孝節)가 기본이며 3000가지 죄목 중에서 불효가 최대였다. 어머니는 극진한 존경으로 섬겨 순종지례(順從之禮)를 다하면서 즐거움을 다하여 보양할 것이다. 질병에서는 극진한 근심을 의약에 힘쓸 것이고, 장례는 극진한 슬픔으로 상례를 다하여 송종지도(送終之道)를 밝을 것이며 봉제사(奉祀事)는 엄숙하게 추모의 정을 다하여야 한다. 사시사철 조석으로 문안을 드리고, 밖에 나가갈 때와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고하여야 한다. 이 모두가 옛날 성현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다. 부모가 만일 과오를 범하였을 때는 정성을 다하여 충고함으로써 점차 도리를 깨닫도록 한다. 자식된 사람은 내 몸을 돌아보아 모든 행실에 덕이 갖추

어 지도록 하여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아야 비로소 어머니를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윤곡이 지닌 인성의 가치관과 윤리적 교육관은 효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이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같은 인생관이 철학관을 지닌 윤곡은 그 효를 몸소 실천하고 또 인간적인 면에서는 공자의 수제자인 증자(曾子)와도 비교할 만한 인물이다. 윤곡은 '강보효자·단지효자·감화효자'였다. 말은 쉽지만 인간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천부의 정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애경(愛敬)의 마음으로 효도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윤곡의 경우처럼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이웃사람을 존경하는 태도는 나아가서는 못사람을 사랑하고 인류사이에 이바지하는 이른바 경천애인(敬天愛人)의 이상형(理想形)이라 할 것이다.

/김형태 · 사천을 정리의

사천읍

사랑의 봉사활동



사천읍 새마을부녀회(회장 안미화)는 11월 9일 하루 동안 경상남도 새마을이·미용 및 수지침봉사대 후원을 받아 개최한 이·미용봉사 활동을 실시해 독거노인 및 불우세대 노인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이날 부녀회에서는 이·미용 및 수지침 봉사대(30명)로부터 읍 관 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150여명이 파마 컷트 및 수지침뿐만 아니라 부

녀회원들이 성심 성의껏 준비한 점심을 대접함으로써 이들 노인들로부터 칭송은 물론 머리와 건강을 챙기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았으며 모두들 좋아 했으며, 이들 봉사대와 부녀회원들의 노고에 연신 감사해 하며 어쩔 줄 몰랐다.

정동면

사랑가득 행복가득 일손돕기



공군 제3218부대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인원 310명을 투입해 정동면 감곡리 외 4개 마을 70여 농가에 단감수확, 벗짚운반, 비닐하우스 철거 등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농촌일손돕기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로 가을걷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주기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일손돕기 창구에 우리지역 군부대가 솔선해 참여한 것으로 주민들로부터 고마움과 사랑받는 지역 군부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갑작스런 우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는 군부대의 도움으로 실질적 도움은 물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사남면

우박피해 농가 단감판매



사남면사무소와 사남농협은 갑작스럽게 내린 우박으로 단감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조 하에 회사 정문에서 사원들의 퇴근시간에 맞추어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면사무소·농협직원, 김기석시의원이 참여해 420상자의 단감을 직접 판매해 판매대금을 농가에 전달해 우박 피해를 입은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하동마을 국화꽃 축제

사남면 하동마을 국화사랑회(회장 강대형)는 10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이틀 동안 하동마을 안길과 마을회관에 약 500여점의 국화를 전시하는 하동마을 국화꽃 축제를 개최했다. 울 봄부터 마을 주민들이 가꾸어온 국화를 일반시민들과 함께 관람 및 전시를 함으로써 평소 국화꽃을 접하기 힘든 시민들에게 국화꽃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용현면

해안도로변 갯꽃 꽃길 조성

용현면사무소와 용현농협은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종포~주문간 해안도로변 약 4km구간의 유희지를 이용하여 갯꽃 꽃길을 조성했다. 지난 10월 유희지 정리 및 파종을 마쳤고 내년 봄 갯꽃이 만개하면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은 물론 해안 도로와 연결한 사천대교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해양관광 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가구 도배봉사

용현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최연두·박정숙)는 15일 관내 어려운 가정에 장판 교체 및 도배 봉사를 실시했다. 통양 및 선진마을 가구 중에 생계가 어려워 주택 수선에 애로를 겪었던 2세대(독거노인)에 대해 장판을 교체하고 도배를 실시해 주거환경안정 및 복지시정구현을 몸소 실천 했다. 새마을협의회는 앞으로도 주거환경의 개선 차원에서 어려운 가구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봉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동면

새마을지도자 투병 병원비 전달

축동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정종환)와 새마을부녀회(회장 박말선)는 지난 7일 『골수백혈병』으로 쓰러져 외롭고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관내 용수마을 새마을지도자를 위해 11월 20일 회원들의 뜻을 담은 성금 140만원을 흔쾌히 쾌척하는 등 점차 사라져가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되살리는데 앞장서고 있음은 물론, 「자주,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계승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악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용수마을 새마을지도자는 전 회원들의 고마움에 답하기라도 하듯 재활에 힘쓰며 미처 끝내지 못한 「가을걷이」에 분주한 모습을 보여 지켜보는 주민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민방위 산불진화 시범훈련



지난 11월 14일 오후2시에 축동면 사다마을 정자나무 앞에서 시단위 제 357차 2006 민방위 산불진화 시범훈련을 실시했다. 축동면 민방위대원 및 유관기관 단체 회원 300여명이 훈련에 참석 산불이 발생하는 가상 모의훈련을 실시해 산불발생시 신속한 상황진화, 산불진화대 긴급출동 및 초동진화 훈련,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소방차 출동과 인명구조 활동, 재발방지를 위한 뒷받침 등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대처능력을 배양했다. 특히 축동면새마을부녀회는 초겨울의 추운 날씨 속에서 따뜻한 음료와 간식 제공으로 훈련참가자 격려와 분위기제고, 훈련동시참가에 최선을 다했다.

곤양면

수동경로당 준공



수동마을의 오랜 주민숙원이었던 경로당이 지난 14일 김수영 시장을 비롯해 마을항우와 지역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준공된 수동경로당은 대지 82평에 33평 규모의 지상 1층 건물로 120가구 300명의 주민들에게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되게 된다. 그동안 수동마을은 면소재지 중심부에 위치하고도 마을의 사랑방인

경로당이 없어 인근경로당을 이용했으나 경로당 신축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모여서 정담을 나누는 휴식공간은 물론 주민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곤양향교 기로연(耆老宴) 시연

곤양향교(전교 정도용)는 지난 10월 31일 명륜당 앞뜰에서 70세이상 노인 150여명을 초청하고 관내 기관장, 유림, 여성유도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로연을 시연했다.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사라져 가는 경로효친사상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선행상 표창과 여성유도회원 임원 임명장 전달식이 거행되었으며 2부에서는 국악단을 초청해 국악한마당과 사물놀이로 노인들의 하루를 즐겁게 했다. 정도용 전교는 인사말에서 기로연의 유래와 충효사상의 고취, 노인들의 민수무강을 기원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사회에 살기위해 우리 모두 예의바른 생활을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곤명면

단종 태실지 첫 헌공다례



단종태실지 헌공다례가 지난 10월 24일 사천 다우회(회장 김한수) 주관으로 곤명면 은사리 옥동마을 회관 앞에서 거행됐다. 이번 행사는 다우회 회원 및 옥동마을 주민의 여러 내빈을 모시고 개최됐으며, 지나간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옛 선조의 넋을 기리는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큰 행사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자매결연 마을방문

지난 10월 26일 곤명면 옥동마을에 자매결연 단체인 부산 수민동 새마을금고부녀회가 방문했다. 수민동 새마을금고부녀회(회장 조순금)와 옥동마을(이장 정종태)간 자매결연은 올 초 3월에 맺었으며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다. 수민동 새마을금고부녀회는 옥동마을 친환경딸기 하우스와 은사리 지시골 새송이버섯 재배사 등을 견학하고, 서로 기념품 전달식을 가지는 등 친목도모의 장을 열었다. 앞으로 농촌사랑운동과 도농상생운동의 하나로 서로의 훈훈한 정을 계속 나눌 예정이라고 한다.

서포면

휴경지 경작 불우이웃 돕기 성금 기탁



요즘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휴경지를 경작해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마련한 가슴 훈훈한 사연이 있다. 서포면 새마을남여지도자연합회는 서포면 구랑리 최병삼 소유 농지 1ha에 버를 경작해 얼마전 수확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도자 40여명이 참여하여 넉넉한 가을 들판에서 하루 종일 땅방울을 흘리며 회원간의 친목을 다졌다. 휴경지 경작으로 인한 수입 200여만원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할 예정이어서 겨울을 재촉하는 쌀쌀한 날씨가 무색하게 가슴 훈훈한 소식이다.

무료 안과질환자 검진

서삼 라이온스 클럽(회장 백동욱)은 지난 12일 서포, 곤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안과 질환 무료검진을 실시했다. 이날 검진 장에는 170여명이 넘는 노인들이 무료로 진료를 받았고 단순한 질환자의 경우는 현장에서 조치를 받았으며 백내장, 녹내장 등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소득 증명이 되면 무료 수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차량수송에서 중식 제공까지 모두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 참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동서동

자연보호경진대회



자연보호동서동협의회(회장 강태석)는 관내 조직단체원 및 주민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7회 자연보호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주요관광지를 중심으로 자연보호 캠페인을 겸한 환경정화활동을 펼쳐 약 3톤가량의 쓰레기 및 각종 오물을 수거하고 정화활동이 우수한 팀을 선정하여 시상식을 가졌다. 이 행사를 통해 자연보호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관광사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동시 지역단체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등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선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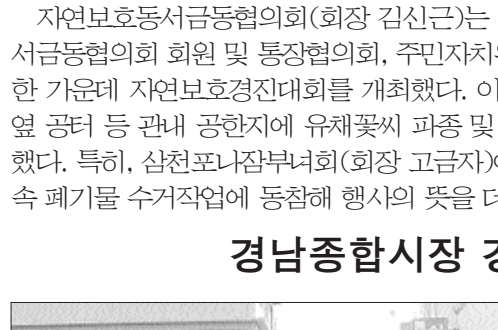
한글교실 개강



지난 11월 17일 삼천포경로당에서 「한글교실」을 개강했다. 성인문해교육사업의 일환으로 학습의 기회를 놓친 노인들에게 배움의 장을 마련해 주고자 열린 「한글교실」에서는, 40여명의 수강생이 신청하여 3회 7주과정으로 기초한글교육을 받고있다. 수강생 전원은 65세이상 노인들로서 교통이 불편한 점을 감안, 선구동방위협의회 회원인 신강래(고려렌트카 대표)씨의 통학 차량지원으로 더욱더 알찬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동서동

자연보호경진대회



자연보호동서동협의회(회장 김신근)는 11월 8일 서구매립지에서 자연보호동서동협의회 회원 및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조직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연보호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통창이주단지, 5층 88수평역 공터 등 관내 공한지에 유채꽃씨 파종 및 노산공원 주변 환경정비 활동에 주력했다. 특히, 삼천포나잠부녀회(회장 고금자)에서 해녀 70여명이 노산공원 앞 바닷속 폐기물 수거작업에 동참해 행사의 뜻을 더욱 되새겼다.

경남종합시장 경로당 준공



동서동은 10월 23일 『경남종합시장 경로당』준공식 및 경로잔치를 김수영 시장을 비롯한 내빈 7명과 마을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했다. 그동안 어르신들이 모여 할 곳이 없었던 차에 부자매일 및 건물신축사업비 1억4500만원을 들여 현대식 건물로 꾸며 경남종합시장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쉼터와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도 활용하여 이웃간의 정을 나

눌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다.

벌용동

통장협의회 선진행정 우리시 접목

벌용동통장협의회(회장 김지규)는 지난 11월 3일에서 4일간 전국에서 관공의 지자체로 알려진 함평, 정읍, 부안을 다녀왔다. 체력관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나비·곤충·꽃이 어우러진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 함평과 천혜의 관광자원인 내장산을 가지고 있는 정읍, 우리나라 급세기 최대의 역사적인 건축공사인 새만금간척지인 부안의 선진행정을 배워왔다. 협의회는 앞으로 벌용동이 추진하고 있는 『계절별 특색있는 꽃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 벌용동 관내에 유채, 코스모스, 메밀꽃 등 단지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공한지 환경정비와 관광 사천시 이미지 부각을 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마을단체 각종 봉사활동



벌용동 새마을단체(협의회장 서영식, 부회장 이영자)는 2004년 도부터 우리시 가가리달기사업에 맡아 경축행사 등 각종 행사시 연 10여회 가가리를 개양하여 주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또한, 「하절기 방역사업」을 추진 하면서 취약지 및 민원 발생지역 등에 체계적인 소독을 실시해 전염병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현우 모으기 운동」, 「쌀한줄 나누기 운동」, 「나눔장터 운영」, 「소공원 정비」 등 지역을 위해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단체에서는 조성된 수익금을 장학금지원, 불우이웃돕기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고 있어 지역에서 인정받는 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3회 청소년 졸업기대회

벌용동청년회(회장 최도현)에서는 지난 11월 5일 삼천포공설운동장에서 사천시 관내 초·중·고등학생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푸른교실만들기 제3회 청소년 졸업기대회」를 가졌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본 대회는 대방초등학교 졸업기 시범단의 시범을 거쳐 19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참가하고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운영되어 우수 선수 및 단체에 대하여 시상을 하였다. 최도현 청년회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이 졸업기를 통해 건전한 여가활동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그 과정에서 단결심과 협동심을 고취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이기주의화된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졸업기 한줄, 한줄이 조직에 대한 개개인의 소중한 역할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향촌동

동조직원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 마련

향촌동 조직원 150여명은 11월 10일 현대중공업과 울산일원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9개 동조직단체의 후원으로 실시된 이번 행사는 동행정 발전을 위해 한해 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조직원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한해를 결산하는 자리로 조직원 서로간에 유대를 돈독히 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남양동

남양인의 날 행사



남양발전협의회(회장 강석순)에서는 남양인의 긍지와 자존심을 고취하고, 남양인의 단결과 협동심을 바탕으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남양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10월 29일(일) 인내 숲에서 『남양인의 날』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남양인 200여명이 행사에 참여하여 오찬 및 주연 행사와 노래 자랑 및 위문 공연, 기념품과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여 남양인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산악인 박정현 초청 강연



바르게살기남양동위원회(회장 김용자)에서는 11월 24일(금) 오후2시부터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에서 지역주민, 전염면동 바르게살기위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적 산악인 박정현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회는 추락한 도덕의식과 사회윤리에 대해 반성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삶의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도록 바른 삶을 실천하는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최하게 되었다.

사천시 10대 뉴스

2006년을 마감하는 12월, 한해동안 큰 비중을 차지한 뉴스들을 대상으로 사천시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10대 뉴스를 통해 2006년 한해를 알차게 마감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편집자 주

1. 민선4기 출범(제7대시장, 5대 시의회)

지난 5.3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천시장에 김수영시장이 당선돼 7월 3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유관기관 단체장을 비롯한 각계각층 대표, 소외계층, 공무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시정시책에 있어서는 가장 시급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중단 없이 잘 마무리하고, 약속했던 공약들을 조속히 실행해 조화와 화합의 복지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경상남도 도의원 선거에서는 김주일, 박동식 후보가 당선됐으며, 시의원 선거는 가선거구에 김기석 최인환 제갑생 후보, 나선거구에 김석관, 진삼성 후보, 다선거구 이삼수, 이문상 후보, 라선거구에 탁석주, 김현철, 최갑현 후보, 비례대표에는 김유자, 이정희 후보가 당선되어 민선4기를 이끌어 갈 기초의원으로 확정됐다.

2.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창선·삼천포 대교

건설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도로교통협회가 주최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사천시 대방동 ~ 남해군 창선면을 잇는 '창선·삼천포대교'가 대상을 차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선정 됐다.

3. 사천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가시화

사천시는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 12만여평에 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 7월 경상남도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용역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사천 진사산업단지에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1조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와 3,00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5,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항공기 부품공급기지로 발전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유치를 증진시키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여자(고등부·일반)농구 동반 우승

농구의 고장 사천시의 농구팀이 경북에서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개최된 제87회 전국체육대회의 여자고등부와 여자일반부 농구경기 우승을 차지 했다.

전국체육대회에서 개최된 농구 여자고등부와 여자일반부의 우승을 사천시에 모두 차지함으로써 농구 고장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그 명성을 전국에 널리 알리게 됐다.

5. 사천대교 개통

1999년 3월 5일 착공하여 총사업비 1,466억원 투입, 연장이 2,145m, 폭이 11.2m로 왕복 2차로 교량으로 가설된 사천대교가 12월 18일 개통으로 주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로 관광도시 이미지 부각

사천시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대상(大賞)에 빛나는 삼천포대교를 중심으로 세계타악축제·노을마라톤·야경축제와 지역특산물인 전어축제·수산물축제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축제를 개최했다.

사천세계타악축제는 지구촌 민속 타악 문화의 조화를 통한 인류에 증진 및 진주·삼천포농악(무형11-가)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했다.

삼천포대교 노을마라톤은 야경축제 기간 중인 8월 12일 오후 6시에 삼천포대교공원에서 개최했다. 삼천포대교 노을마라톤 대회종목은 하프, 10Km, 5Km이며, 4,000명이 참가했다.

잡수시고! 노시고! 주주시고 가이소! 라는 슬로건을 내건 '제5회 삼천포항 팔포 전어축제'가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5일간 삼천포항 팔포매립지에서 축하공연과 불꽃놀이, 전어요리 맛있게 먹기 대회, 노래자랑, 전어 잡기 체험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해 특색 있는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엑스포 기간인 지난 20일과 21일에는 삼천포수협 활어위관장에서 제1회 삼천포항 수산물축제가 함께 열려 2만5,000여명의 관광객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생선회 요리 경연대회 등 36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해양수산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

7. 동지역 도시가스 공급으로 주민 숙원 해결

사천시 동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도시가스 공급이 가시화 됐다. 이번 사업은 총연장 30.75km에 13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1차적으로 내년 까지 벌용동 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동지역 전역에는 연차적으로 2009년 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5월18일 착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시행하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일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가스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므로 서민들의 가계에 보탬이 되고 편리하고 안정적인 연료공급은 물론 무공해 청정연료 사용으로 생활환경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8.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시 인구가 도·농 통합이후 11년만에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 도·농통합당시 12만3000명이던 인구가 올해 3월 11만명으로 최저인구에서 점차적으로 늘어 9월말 기준으로 11만2000명으로 2000명이 증가 했다.

시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요인을 보면 공단지역 기업체 유치에 따른 고용창출에 기인한 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인구증가 역점시책으로 출산 및 전입가정에 대해 우대인증 발급제 시행과 출산기념품 지급 그리고 셋째자녀이상 출산시 장려금 지원과 임신부와 신생아 및 영·유아 보육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비 걱정 없는 시'를 만들고자 셋째이상 자녀와 두명 이상이 사천시로 전입오는 고등학생에 대해 수업료 전액을 지원토록 해 올해부터 시 관내 고등학생 82명에게 지원 했으며 이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받게 된다.

9. 사천초전공원 조성

사천시는 아름답고 특색 있는 휴식처 제공을 위해 사남 방자리 및 초전리 일원에 13만7,500㎡(4만1,590평)의 부지에 4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사천초전공원을 조성한다.

내년말 완공예정인 초전공원은 연꽃관람데크, 야외무대, 숲속쉼터, 숲속교실, 피크닉장, 데크스텐드, 건강마당, 이벤트광장, 바닥분수, 수변무대, X-게임장, 카페테리아, 잔디마당, 게이트볼장, 족구장 등으로 조성된다.

10.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사천시는 올 2학기부터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 했다. 급식 중인 초등학교 19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9개교로 전체 38개교 1만6,000여명의 학생에게 1인 1식당 평균 식재료의 10%를 현금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질 좋은 학교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시에서는 질 높은 학교급식을 통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위해 계속해서 학교 급식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